

18. 조동식(趙東植)

1) 충성과 효도는 하나 - 일본국민의 충효정신

동덕고녀교장(同德高女校長) 조동식

이번 태평양전쟁에서 진주만을 폭격하여 혁혁한 전과를 이룬 특수 잠항정(潛航艇)의 이와사(岩佐) 중좌(中佐) 위훈(偉勳)은大本營 발표와 우리 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수 잠항정의 혁혁한 전과를 이루게 한 아홉 분의 군신(軍神)은 한결같이 죄다 효자인 동시에 더욱이 어머니에게 대하여 정성된 맘을 어느 때나 바친 분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던 정신의 힘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는 언제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아들을 기르기에 힘써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일본정신의 한 개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통이 되는 바 그 예를 두어 개 든다면 남정성(楠正成) 장군의 아낙이 남정행(楠正行)에게 한 일이라든가, 라이 산요(賴山陽)의 어머니가 뇌산양에게 한 일이라든가, 나카에 토주(中江騰樹)의 어머니가 중강등수에게 한 일이 죄다 나라를 위하는 정신 밑에서 된 일입니다. 또 이들 옛 어른들이 죄다 어머니에게 대하여 지극한 효자이던 것입니다.

나라 일이 다단할 때는 맘과 몸을 다함께 나라에 바치다가 평화가 돌아오면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효자의 문중에서 충신이 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머니와 이런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인 동시에 이런 시기에 일층 깨달으실 일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만들어 나라에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일은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이런 일을 거울삼아 오늘의 군국의 어머니로 가질 바 태도와 취할 바 길을 더욱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 일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아들을 넘으로써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성사회의 전통을 더 확연히 할 수 있는 동시에 나라를 위하여 돌아간 호국의 영령에 대하여 보답하는바 될 것입니다.

〈출전 : 趙東植 「忠誠과 孝道는 하나 - 日本國民의 忠孝精神」, 『매일신보』, 1942년 3월 9일〉

19. 조병상(曹秉相)

1) 반도청년의 진로 - 항상 사회의 선두에 서서

조선연맹 참사 조병상

청년은 먼저 원기와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원기활달하게 항상 진취의 기상으로 불타 올라야 한다. 청년은 앞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용맹심이 필요하다. 용기가 없는 청년은 거품이 빠진 맥주와 같고 끓어오르지 않는 사이다와 같다. 청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반도청년(半島靑年)⁷⁸⁾은 이미 황국청년(皇國靑年)이다. 황국청년인 이상 평범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두 배의 노력을 해서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크게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은 용기이다. 어떤 일이든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목표가 없는 생활은 부동(浮動)한다. 따라서 실패하기 쉽다. 반도청년은 분명한 목표를 정해 인생의 행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것이다. 황국청년임을 깊이 자각하고 일본의 대사명을 인식하여 일본의 사명 수행을 분담하는 결의를 다져 매진해야 한다.

이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무엇을 동아시아에서 이루려 하는지, 세계에서 일본의 지위,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잘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자신의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라도 분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반도청년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청년은 소극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늘 선두에 서서 사회의 중견인물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와 같이 시대의 추이가 격렬하고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고 있을 때는 청년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반도는 바야흐로 흥아(興亞)의 신건설에 있어서 일본의 병참기지로써, 일본정신의 발양에 있어서 동양의 영원한 평화 확립에 크게 기여·공헌하는 바가 있다. 반도청년인 자, 능히 책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한층 더 분투·노력하여 황국청년으로서 유감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曹秉相 「半島靑年の進路—常に社會の先頭に立て」, 『總動員』 1卷 2號, 1939년 7월, 19쪽〉

78) 조선 청년.

20. 차재정(車載貞)

1) 옛 동지에 고함, ‘자연의 길’=전 좌익 제우(諸友)에게 답함

1.

내가 공산주의 민족주의 급(及) 기타 일체의 반국가적 사상 계열에 대하여 배격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지도 받서 3년이 되어 온다.

그것을 표명할 당시 얼마 동안은 좌익 청년들의 협박장도 날려 드러왔고 옛날의 좌익 동지였던 우인들의 간곡한 충고도 있었고 더러는 나를 면매(面罵)하는 용감 기특한 투사도 있었다. 그것도 잠시엔 불과했었고 우금(于今) 2년 반 여를 통하여 반대다운 반대에도 봉착하지 못했었다. 깃것 있었대야 지극히 저열한 개인에 대한 참무중상(讒誣中傷)이 고작이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조선 내 좌익의 잔재란 허잘 것 없는 무기력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나는 그렇게도 보지 않는다. 그들의 지속하는 침묵과 관망에는 정당한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며 그들에게 일편의 존경의 염(念)까지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나로서는 좀 더 강력한 반대를 기대하였었으며 도전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나에게 준 바 협박 중상, 타매(唾罵), 충고 등등 가운데서 특히 대표적인 것을 기록해 보면 첫째로 협박 중상 부류에 속한 것으로는 판에 박은 듯한 저급한 것이다. 계급의 배신자(裏切りモノ), 민족의 배신자(裏切りモノ), 배교자, 제국주의의 스파이, 제국주의자에게 매수된 자 죽인다. 등등 한아도 경청할 만한 것도 없고 소위 부족괘치(不足掛齒)의 류에 불과하나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조선의 과거 공산주의자 급 그들의 판 가운데에 이 레벨에서 지나치는 부류가 과연 기허(幾許)나 될지 나는 의심한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공산주의가 한 종교 형식으로써 드리 백혀 있는 것이다. 춘부춘녀의 우맹들에게 야소교나 불교의 비판 안(眼)이 없어 그저 맹신 맹종에 굶치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도 의식이 분명치 못한 대중 층에는 그것이 종교나 다름없을 것도 당연한 일이며 운동 그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 있어서나 공산주의의 신도는 아니었다. 나는 공산주의를 조선 민중의 향상과 발전의 길로 인식하고서 그것을 실천코저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과 배치되는 한 공산주의는 받서 무용한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의 조선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이론적 급 실천적 결과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타일의 기회가 있으려니와 간단히 주요한 몇 가지를 거시(擧示)하자면 첫째 조선의 민족적 개성과 역사 전통 급 현하 실정은 공산주의의 실천을 전면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것, 둘째로 콤포민테룬의 국제푸로레타리아에 대한 죄악적 지도는 조선 민중 운동의 정당한 발달과 향상을 파괴하는 것 셋째로 과거 4반세기 동안의 조선 민중의 고투의 존귀한 체험과 동아사 발전의 신방향은 주객 양 조건이 완전히 조선 민중에게 ‘자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준 것 등이다.

그러나 여상(如上)의 몇 가지는 원래로 맹종적인 공산 교도의 인식할 바 아니다. 그들은 조선 민중의 이익과 발전보담 오즉 공산주의의 활자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배(輩)이며 민중의 복리보담은 관념의 법열(法悅)에 독선적 만족에 포만하려는 자들이다. 과거 조선 공산주의 진영에는 이러한 수준의 인물들이

비단 대중층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당의 지도층 인물에서도 차저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민중은 과학의 법의를 입은 경문(經文)의 활자를 요구치 않는다. 생생한 현실의 완전한 개선을 요구한다.

둘째로는 노발충천(怒髮沖天)해서 타매하는 부류이다. 이들의 직정(直情)에는 실로 정에 늦기워진다. 있던 노(老) 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를 면매한 나머지 “내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맥여주마…… 나는 네가 그럴 줄이야-” 하며 거짓 없는 휘루(揮淚)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와 동형(同型)의 옛날 동지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간 뒤에 조용히 혼자서 비판해라고” 하고는 갈렸었다.

이들은 대개가 실천과 경험을 주로 하는 10년 20년의 역사를 가진 옛날의 투사들이다. 이들은 오죽 절조로써 모든 것을 비판하는 척도를 삼는 좀 완명(頑冥)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나 나는 이들에게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가진다면 그들을 국가주의에의 과감한 전향을 할 수 있는 직정경행(直情勁行)의 인물들이다.

셋째로 충고파이다. 이들은 가히 더부러 의론해 볼만한 부류이다. 첫째 그들은 우리의 주장하는 국가주의의 조선에 있어서의 여부와 국가주의에 의한 조선 민중의 장래의 운명을 먼저 고려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가장 당연한 태도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가 일본 국내의 현실 분석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요소의 힘과 공산주의 세력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또는 소련과 중국 쏘베틀 세력에 대한 동양(同樣)의 지나친 평가에서 우리들의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그들의 이러한 비판이 실당(失當)한 점은 첫째 그들의 비판이 근본적이 아니고 너무나 정책적인 것과 또 보담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없는 것과 콤포민테룬에 대한 역시 근본적인 비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국내의 대부분의 민중은 강력적인 대륙정책을 이해치 못하며 그리고 2·26 사건과 같은 국내혁신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일본에 팻쇼정치가 수립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는 논거에서 조선에서 국가주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그러한 인식이 정당치 안다는 것은 그 후의 모든 정세의 변화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된 것이나 2년 전에 나에게 그러한 논거에서 국가주의운동의 전개를 지난한 일이라 하여 그 중지를 권하든 그들 공산주의 진영의 유수(留守)부대도 이제는 현저하게 그 인식이 정정되었을 줄 안다.

이상에서 나는 2년 수개월 전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국가주의운동의 신 전개에 대한 반대의 경향을 타진 보고하였거니와 이것은 당시의 조선 좌익운동의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된다.

2.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었다는 점을 드러 공격만을 삼고저 하지는 안는다.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 여하한 박해를 가한다 하드래도 그것은 원래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우리 몇몇 동지들로 더불어 조선에서 반공운동을 전개하고 국가주의운동을 이르고저 한 동기는 좌익운동의 결함과 조선의 특이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의연히 좌익진영을 고수하고저 하는 좌익 요소들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한 인식 과정에 도달된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국가주의 진영으로 기입(技入)하리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진실한 민중의 지도자는 한 사상체계에 충실하기 위하여 민중의 운명을 그르치지

안을 양심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의는 공산주의 배격의 조건 아래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공산주의자로서 국가주의에 의 이행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종래의 그들이 생활하고 있던 세계에 대하여 절연하고 더 나아가 충구를 드리대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장 약한 인테리에게는 원래로 요구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주의 진영의 진실로 정예로운 지도자는 그들 중에서만 구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될 것은 작금의 소위 '전향(轉向)'이다. 이 전향이란 표현은 원래는 지극히 단순한 의미로서 좌익 운동에서 탈각하여 선량한 국민이 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이 해석 되었으나 나의 생각하는 바로는 국가의 법률이 그들 공산주의자에 요구하는 전향은 그것만으로 족할는지 모르나 그들 공산주의의 영향하에 노여 있던 민중에게 대하여 그렇게 독선적인 전향행위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심한 전향형(轉向型)에 이르러서 관경(官警)에게 대하여는 꼭드시 전향을 약속하고도 외부 대중에게 대해서는 의연히 모호한 좌익적 구분(口分)을 놓(弄)하는지 극히 비겁한 전(前) 좌익들도 있다. 그런 형(型)의 전 좌익들이 금후 여하히 발전될 것인가는 매우 흥미 있는 거리이나, 그러한 태도는 꼭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중지도의 책무가 있는 자는 전향 후라도 그들의 대중에게는 동일하게 책무가 남아있다.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간단한 이유다. 그러나 현명한 대중은 그들의 지도자가 전향하기 전에 앞서 앞질러 자기의 갈 길을 택해서 견실한 보조를 내 드리고 있다. 그것은 곧 조선 민중의 개성과 전통 급 현실이 지시하는 '자연의 길'이다.

3.

작금 수년래의 특히 사변 이후의 조선 민심의 동향을 살펴보건댄 그것은 한 새로운 민중 이상의 추축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표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심 경향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일시적 인공(人工) 소산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바치는 노력의 가지가지에 영똥할 진지성이 숨어있고 그 개개의 노력 자체가 이미 한 힘을 구성하여 있기 때문이다.

조선 민중이 사변을 통하여 현저하여진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적 표현과 아세아 우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변에 맞치는 모든 의무는 비록 자연생장적인 일면으로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그러케 됨에는 여러 가지로 과거 생활에서 축적된 정치적 사상적 자각이 크게 힘입어 있다고 보겠다.

즉 금반 사변을 통하여 본 조선 민심동향의 특징은 그것이 놀날 만치 현실 귀의적인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사랑한다는 점이다. 금반 사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조선 민심의 현실 귀의의 특징은 그들의 과거 4반세기 동안의 이상 추구의 생활이 결정해 준 자각이다. 그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대단한 표현을 하게 된 것도 동일한 경로이다.

과거의 그들의 생활이 무이상(無理想)한 범범한 생활이었던들 금일과 같은 이러한 비약적 현상은 기대키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XX운동에서 공산주의운동에서 실로 존귀한 체험을 쌓은 것이다. 이상 추구의 공허를 만끽하는 일면 역사와 현실이 결정하여 주는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자각한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 있었음으로 만 비로소 과거에 대한 하등의 고념(顧念) 집착도 없이 솔직 대담한 국민 행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일본의 변영을 바라고 일본의 흥융을 염원하게 되는 것은 '받아오는 새 일본'을 동경의 표적으로 삼은 까닭이다. 금차 사변에 나타나는 신일본의 포부와 이상이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일척(一擲)케 하였든 것이다. 2·26사건 이후의 혁신 조류와 이것의 유력한 실천 표현으로서의 대륙정책의 강행-지나사변 등등 신아세아 행진의 대규모의 소음은 조선 민중을 그들의 장몽(長夢)에서 불러 깨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과거의 조선의 좌익적 제운동은 공죄상반(功罪相半)이다. 었던 논자와 같이 더퍼 노코 과거는 불살너 버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조선 민중 근대적으로 자각시켜 그 의식 수준을 세계 수준에 노아준 것은 분명히 좌익의 공이다. 맑스주의-공산주의 그것에 대하여도 역시 동양(同樣)의 발언을 할 수 있다. 현하의 사회는 무수히 광정(匡正)해야 할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함을 극명, 면밀하게 세계적 규모에서 지적하고 그 광정의 방법에까지 부분적으로 지시하여 준 것은 분명히 맑스주의의 공로이다. 우리는 맑스주의의 정당한 부분까지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영양소이다. 원래로 맑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체계이다.

그러한 추상적 공식이 무조건하고 전적으로 해당될 구체적 사회란 현실 세계에는 어디나 존재치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세계의 맑스주의의 포교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현실하는 천국을 몽상하였든 것이다. 공산주의가 범한 죄악은 그 책임이 맑스 자신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후의 해석자, 포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원래로 개개의 구체적 사회에 대한 변혁이란 몇 개의 공식에 의해 될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맑스주의 자신이 거부하는 바일 것이다.

더구나 콤포테룬과 같은 이상적 조직을 두뇌로 한 각 국 각 민족의 운동이 당해(當該) 국민 사회의 개성과 전통에 일치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콤포테룬의 세계정책의 실패는 곧 각개 국민사회의 승리이다. 한 민족 사회의 추축은 과학이 아니라, 개성이며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맑스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실천에서 배운 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교훈을 조선 민중은 금차의 사변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실천해 옮긴 것이다.

과반(過般)의 장고봉(張鼓峰) 사건을 통해 볼 때에도 조선 민심은 추호의 동요도 없었다.

2·26사건을 목도하고 그 후의 혁신 조류를 보고 또 금차의 사변을 통하여 나타난 일본의 이상과 포부를 뜻고도 오히려 일본의 제국주의 운운을 말할 자는 크렘린의 과대 몽상광 환자들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행여 불행하게도 조선에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총중(塚中)의 부란시(腐爛屍)나 다름없는 태양에 등진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이상에서 일응(一應), 과거 좌익 운동의 정당한 방면을 드러 변해(辯解)하였으나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일본의 국가적 흥융과 아울러 조선 민중의 신생활 목표는 공산주의적 잔재의 일호(一毫)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4.

조선 내에만 수천의 전 좌익이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작금의 조선 민중의 새로운 애국적 국민적 경향을 대할 때에 가벼운 불유쾌를 늦길 것이며 묵묵한 가운데 사변의 발전이 엇지 될 것인가를 주시하

는 동시에 사변의 장기화에 반하는 민심의 해이에 킁킁한 기대를 붙일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 민중은 과거 4반세기 동안 하늘의 별을 따는 곡예를 해 온 경험이 있는 민중이다. 그러한 공막(空漠)한 희망에도 수십 년의 고초를 사양치 않은 민중이려든 하물며 한 고개 넘으면 녹야의 복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소소한 충후의 부자유를 거부 회피할 이유는 없다. 타산에 현명한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또 타산을 떠난 관찰로라도 조선 민중의 세계사적 운명이 이미 일본 전체의 운명과 동일할지는 오래다. 이제 새삼스러히 일본 전체의 운명과 수이(殊異)한 독자의 운명이 있을 것은 아니다. 과거 4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공허한 노력이 그것을 여실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차라리 우리는 과거 4반세기의 노력의 결과에서 조선 민중의 독자의 운명을 발견키는커녕 그와 반대의 명제를 추출하지 안었는가. 그 동안의 다각적 노력은 더욱더욱 양 민족의 일체 불가리(不可離)를 거듭 확인케 되었을 분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동안의 상극 반목은 도리혀 양 민족의 차별면과 장애부면(障害部面)을 완전히 마멸식힌 결과로 날아나지 않았는가. 이것은 커다란 역사의 숙명이며 세계사의 배제(配劑)이다. 이제 그러한 우몽(愚夢)을 되푸리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반역자이며 태양에 등진 우울한 사람 들일 것이다.

우리는 극동 제민족의 변혁이상(變革理想)을 검토해 볼 때 현하 진행되어 있는 일본의 대륙 이상 이외의 여하한 우수한 이상도 발견하기 어렵다. 문화, 전통, 지리, 언어, 족계(族系) 등의 연원을 같이한 화선만지(和鮮滿支)의 제민족이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면서 동아적 대국가계통을 수립하여 구미에 병립하여 동아인의 동아를 건설하려는 포부는 일호의 무리도 부자연도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길이다. 더구나 이러한 동아사 창조에 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선 양족(兩族)이 일체가 되어 그 중추 핵심을 구성하여 이여(爾余)의 제민족에 대하여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손톱만한 불명예와 불행도 조선 민중에게 없을 것은 제3자의 공명을 기다리지 않드래도 자명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련 있고 교양 있는 조선의 민중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사변 중 일본 내지를 여행한 자가 조선의 충후 국민의 의기를 내지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선이 오히려 일보 전진한 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의 대륙 정책의 심원한 이상을 이해하는 점은 조선 민중이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나도 생각한다. 일본 내지에는 자유주의 계열이 조선에 비하여 근거 깊고 또 2·26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묘정(廟政)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유신 후 70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그러한 자유주의 계열에 있었든 만치 대륙 정책, 기타 국내 문제에 있어서 조선의 그것과 같이 단순치는 않다. 그러한 제점에서 조선이 일보 전진했다는 것은 수궁할 수 있는 기설(奇說)이다. 그럼으로 역사는 기이한 것이다. 여하튼 조선의 금후는 국가주의 이외의 여하한 사회 이상도 성장할 조건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나의 이러한 신일본의 이상을 대변함에 대하여 몇 가지 반문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첫째 내선일체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느냐는 무름이다. 이러한 반문은 대개 민족주의 계열에서 발하는 의문인데 과연 민족주의자들의 식견에서 볼 때에 그것은 커다란 의문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이해하는 한의 민족이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한 역사적인 것이니 생성, 발달 몰락할 수 있는 역사적 범주이다. 그럼으로 현존 민족의 구성을 상세히 검토해 볼 때에 순정 단일민족이란 있지 않다. 가장 순정을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일본민족일지라도 조선을 제하고서도 홋카이도(北海道), 류쿠(琉球,⁷⁹) 기타, 수세기 내지 수십 세기 전의 조선 민족의 이주 등의 사실을 열거할 수 있으니 황(況) 기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으로 내선 양족은 민족으로서 일체가 될 수 있다는 원리를 거부할 논거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근본 문제 이외에 정책적 의문이 있으나 그것은 누구나 한 번은 의심할 만한 문제이다.

한아는 내선일체는 조선 민족의 XX를 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인 바 내선일체는 조선 민족의 XX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발전이다. 발전도 XX으로 해석하면 논리의 유희로는 가능한 형식이다. 팽창하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문은 고루 편협한 견해의 일종이며.

그 다음은 통치 당로자 및 내지인 일반이 조선인을 동일 민족으로서 무차별하게 취급할 아량과 용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것은 비교적 현명한 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발되는 질문인 바 과거 30년 동안 내선(來鮮) 내지인의 실정을 잘 아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한다. “조선에 와서 조선인을 상대로 해 온 과거의 내선인(來鮮人)은 과거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발서 새 일본의 추진력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한 수 년 지나면 죽어버린다”라고. 과연 조선의 내선인은 조선을 개발하는 데 큰 공로도 있었으나 그들의 30년래 변함없는 완명(頑冥)한 생각은 조선 통치에 장애되는 일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극히 사소한 문제로서 원래로 대세를 결정할 것이 아니다.

내선 양족이 동조동근을 구두로 문서로 가장 열심히 일본 전 국민에게 웨치는 사람은 동경 등지에 낭인들이 있고 그리고 현 미나미(南) 총독이다. 그는 내선일체를 신념화 식혀있다.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론이 일본 전 국민에게 무조건으로 납득될 리는 없다 하더라도 그 대세를 지도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은 무의(無疑)의 사실이라 하겠으니 내지인 일반에게는 대세적으로 동일 민족으로서 조선인을 쳐우하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을 용이히 추단할 수 있다.

특히 금반 사변이래 조선을 통과한 출정장사(出征壯士)는 실로 감격하여 조선 민중의 호인상(好印象)을 각자 향리에 통신하여 일반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깊어졌다 한다.

만조(萬條)의 정책보담도 내선일체의 가장 첩경은 내선 양족의 완전한 이해의 일치이다. 내선 양족은 이미 천칭(天秤)의 각 일방에 달려있으니 역사시간의 진전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이에 수반한 것으로는 언어 풍속 습관 등이나 이것은 원래로 문제시할 것이 아니다. 인위강작(人爲強作)이 아니고서도 이것은 시일의 경과를 따라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소장(消長)이 결정될 문제이니 억측을 불허할 바이다. 그것의 유력 실례로 수일 전의 미나미 총독은 면회석상에서 “조선의 부인복을 내선을 물론하고 착용케 하고 십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아 총독 정치의 저의가 조선 풍속 습관을 강작적(強作的)으로 철폐할 의사가 없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가.

그 다음으로 조선의 인텔리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이고서 우리에게 발문하는 것은 ‘명일의 일본,

79) 류쿠는 옛 지명이다. 현재의 오키나와현(沖縄縣)을 말한다.

새 일본을 말하자면 명일의 일본은 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지극히 중대한 설문이다. 그럴 때마다 간단한 답변을 시(試)한다. '2·26사건 이전의 자유주의의 정권은-한 계급의 정권이었으나, 그 이후의 정권은 전 국민의 정권이며 정부이다'라고 나는 항상 생각한다. 2·26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비난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반역죄로서 치죄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본 전 국민에게 준 정신적 충격이란 실로 막대한 바이 있으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 전 민족의 전통의 자량은 다시 사라났고 일본 민족의 갖이고 있는 '민족의 피'는 다시금 고동키 비롯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전 민족을 외화(外化)의 타락에서 구하였고 고유한 일본 정신을 환기한 것이다. 그럼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객관적 효과는 법률과는 별 문제인 것이다.

이상의 나의 간단한 답변은 소위 '명일의 일본'을 규지(窺知)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이다. 이제로부터의 일본은 자기의 가고저 하는 '자연의 길'을 일본 민족의 역사적 사명의 명하는 바에 의하여 세계사의 결정하여 주는 방면으로 향하여 묵묵히 맥진(驀進)할 뿐이다. 일본 정신적 사회가 완성-근대적으로 완성되는 곳에는 계급도 없고 착취도 없다. 이민족에 대한 박해도 식민지적 지배도 거기에는 존재치 않는다.

"국민은 똑 같이 천황의 적자(赤子)로서 모두 평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서 계급도 차별의 존재도 허락하지 않는다. 한 사람일지라도 불평이 없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모든 물(物)- 재산은 이것, 신이 만든 것으로 국민은 신의(神意)에 의해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된 것이다"-인민전선(人民戰線)과 국가전선(國家戰線)

6.

명일의 일본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적 혁신 정책의 강화와 사변과의 상관관계이다. 지나사변의 의의는 이미 국민 일반의 깊이 이해하는 바려니와 단(單)히 사변을 가르쳐 폭지(暴支) 응징 항일정권의 근절 등등만으로는 사변의 역사적 의의를 참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일지사변(日支事變)은 국내적 혁신공작의 중요한 일면이라는 것을- 즉 사변과 국내 정세와의 내부적 관련을 이해치 않고서는 이 사변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나사변은 국내 혁신의 구체적 과정의 일부이라는 것이다.

이 사변을 통하여 우리는 국내문제를 처리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문제를 처리코저 한다. 일부 자본벌(資本閥) 등은 나이푸 포크를 작만해 갖이고 대기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금번의 사변은 일본의 자본벌들에게 장강(長江)의 선어(鮮魚)나 북지(北支)의 양육(羊肉)을 뺏이기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로 이번 사변이야말로 전 일본의 국력을 도(賭)하야 구미의 협위(脅威)와 침략에서 동아를 해방하고 일본 자신의 완전한 해방을 기도하는 결정적 싸움인 것이다. 국내의 자본벌들은 부와 재(財)의 추구에만 몰두하야 국가 백년의 대계라든지 민족 영원의 경륜이라든지 생각지 못하는데서 이번 사변에 대한 인식을 다른 그야만로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전쟁의 결과와 그들의 이윤을 저울에 달고 수반(數盤)알을 굴리고 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미구에 크게 실망할 것이다. 아니 눈치 빠른 상인배는 벌써 실망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이러한 점은 사변과 국내 문제와의 사이에 기분(幾分)의 복잡성을 가하는 문제 중의 한이다.

자본 정당배 기타 상인 재벌 등은 일시 대영개전론(對英開戰論)을 주장하였었다. 그 근거는 그들 독자(獨自)의 사변관에서 지나시장 독점을 몽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변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나시장의 제국주의적 독점이 아니다.

차라리 금번 사변의 본질로 보아 그 역사적 의의로 보아 사변의 완전한 중국을 뺏기 위하여는 대소일전(對蘇一戰)이 예상될 법한 일이다. 일본의 국체 또는 동양의 평화 동양적 개성의 창달 동양전통의 수호 일본정신의 발양 등으로 보아 소련이 빠치는 극동 루트는 조만 파괴치 않고서는 아니 될 필연적 숙명에 있다. 세계의 푸로레타리아와 약소민족을 기만하여 소련 옹호의 변명을 삼고저 하는 콤펀테룬의 비열한 만착(瞞着)을 근절치 않으면 안 된다. 소련에 일격을 가하는 것은 금번 사변의 임무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것의 완성 부분이다.

내외의 좌익 제군은 아연할지 모르나 조선의 민중은 대소일전을 차라리 요망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지주나 자본가가 아니라 농민이며 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생활 목표가 쥐여져 있고 그들의 민족적 개성과 전통에 합치되는 국가적 만이 자기들이 갈 진로라는 것을 과거의 모든 실천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변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떠한 운명을 재래(齎來)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보아 좌익 제군이 이 사변의 추이에 반하여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적 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하등의 기대도 갖일 수 없다. 그들은 머지 않아 전쟁에 관한 모든 콤펀테룬의 테-제를 불살러 버리지 않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7.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할 것은 사변 이후의 조선 내에서 나타나는 제현상이다. 사변이 나자 시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활동이 부분적이거나 현저하여 졌다. 그래서 소위 '시국에 활약하는 명사(時局に躍る名士)'라는 것이 거연(據然) 배출한 것은 은폐할 수 없는 사실인 바 그들 명사의 면면을 볼 때 제군은 하품할는지 모른다. 제군은 사변하의 총독 정치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갖었을 것이다. 교육령의 개정, 지원병 제도의 실시 등 이것들은 그에 좌익 제군의 만족을 기분(幾分)이라도 산 줄로 안다. 그러나 기타 예를 들면 관민 콤펀테룬의 시국활동이라는 데 날아난 총독부의 방침을 볼 때 제군은 이구동음으로 (1항략-원문) 나는 이 글의 모두(冒頭)에서 침묵 관망을 지속하는 전(前) 좌익 제군에 일편 경의를 갖인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다는 것을 지칭함인 바 그들에게 이 조잡한 일문(一文)을 공(供)해야 빛나는 국민 전사가 되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

부기(附記) '지금 전시하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어서 좀 더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점도 있었으나, 자연히 체계도 아모 것도 없는 한답이 되고 말았다.'

10월 5일

〈출전 : 車載貞, 「넛 同志에 告함, '自然의 길' = 前 左翼 諸友에게 答함, 『三千里』 第10卷 11號
1938년 11월, 109~118쪽〉

2) 동아협동체와 조선 - 동아신질서와 혁신

무한(武漢) 3진(鎭)과 광둥(廣東)의 함락은 ‘지나사변’⁸⁰⁾ 자체의 전국적(戰局的) 발전에 신단계를 획하였을뿐더러 동아시아 발전의 방향에 신표지(新標幟)가 되고 말았다. 1년 유여래(有餘來)의 사변은 이것을 계기로 비로소 그 상모(相貌)와 개성을 전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전세계의 면전에 나타내인 것이다.

항적(抗敵) 장개석(蔣介石)정권은 이로써 그 항전의 최대 근거를 상실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국제외교적 근간을 빼앗기어 발서 일본의 사변 상대자로서는 지극히 무력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국제 금융자본의 괴뢰 장개석정권의 무력화는 곧 지나를 지배해 온 영미불(英米佛) 등 구미자본의 지나에 있어서의 패배와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구미의 자본적 제국주의의 극동지배의 최대 견루(堅壘)의 한아가 분쇄된 세음이니 구미의 자본적 제국주의가 1세기래 결구(結構) 유지해 온 바 동아시아의 침략체계는 이에 그 결정적 파국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써 사변은 그 본래의 목적의 본격적 궤도 우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으니 급차 사변의 참된 대상과 목표는 지나민중과 지나시장 이의 제국주의적 독점이 아니라 구미자본의 지나침략과 그것의 주구인 항일정권의 조치(阻止)배제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동아에 가장 합리적인 신질서를 부여 수립하는데 있었음에 감(鑑)해야 무한공략 후의 사변은 정부당국의 성명과 같이 정(正)히 신단계에 발전하였다.

고노에(近衛)내각은 무한공략 후의 성명에서 동아신질서의 수립을 말하였다.

사변 후의 동아에는 여하한 양상의 신질서이건 종래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 출현할 것은 어김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 신질서에 관하는 한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막연한 한 개의 개념이다. 지나에서 구미의 제국주의가 무력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구축(驅逐)될 수 있다는 것과 항일정권이 소멸하고 신정권이 수립된다는 것 중국의 적색세력을 구축하고 동시에 콤포테론의 적색통로를 분쇄한다는 것 그리고 묵은 중국과 묵은 동양을 결박해 논 일체의 외교관계가 예컨댄 9개국 조약류의 신사태의 정세에 부합치 않는 것이 파기되리라는 것 등등 이외 동아시아의 일만지(日滿支) 3국은 정치적 경제적 급(及) 사회문화적인 각 부문(部面)에 궁(巨)하여 완전한 협동체적 단위에 결합되리라는 것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제점(諸點)이나 다못 이러한 상식적 제점의 이론만으로는 동아신질서의 진정한 자태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인이 알고저 하고 또 장래의 이 신질서에 포괄될 전 동아시아 민중의 알고저 하는 점은 그 신질서의 사상적 급 문화사적 기초이다.

동아시아의 신질서는 단적으로 말하면 동아시아 제민족의 신생활질서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신지나의 건설을 통하여 우리의 신생활질서를 부여될 약속하에 있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은 동아신질서 수립의 능동적 담당자이며 그 주체인 일본의 내부인식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여(所興)의 동아신사태와 그 건설의 능동적 주체 즉 객관과 주관-의 통일된 표현이 그 과정이 장차 나타날 동아시아의 신질서이기 때문이다.

80) 중일전쟁.

동아에 신질서를 부여코지 하며 있는 일본민족은 그 자신 자기의 내부적 신질서를— 그것을 일본적으로 표현해서 혁신을 요구하며 있다.

그리고 이 국내혁신은 대륙의 신질서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외교적 제필요 우에 노여져 있어 대륙신질서와의 관련은 교호적(交互的)이며 동시적이며 병행적인 제면(諸面)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신질서의 내면적 요소로서 일본의 국내혁신은 대륙신질서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국내혁신을 이해치 못하고 대륙의 신질서를 인식하기는 태(殆)히 불가능한 것이니 즉 일본의 국내혁신의 사상기조는 곧 대륙질서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의 신질서이거나 일본의 혁신이거나 그것은 전면적이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국제외교적 제방면에 궁(亘)하여 고찰될 것이나 문제는 그것을 단적으로 요약할 때 그것이 자본주의적나 반(反) 자본주의적이냐이다.

물론 이밖에도 논의의 중점은 여러 곳에 노여질 수 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일본주의와 동아주의 동아전체주의와 세계주의 등등의 우에 관점이 두어지는 것도 지극히 필요한 일이나 그러한 일면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관찰의 중점은 자본주의적인 여부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적 제국민사회의 변혁과정은 우선 자기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필요로 함으로서이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적 하드래도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으니 맑스적 공산주의 독이적(獨伊的) 전체주의 (나는 팻시즘사회를 반자본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또는 혁신적 일본주의사회 등등인 바 그러면 혁신일본을 능동적 지도의 주체로 하는 동아의 신질서는 여하한 질태(質態)의 기조 우에 입각할 것이며 또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되여지기를 오인은 바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도에서 사변의 처리로서의 동아신질서의 일본적 동아사적 세계사적 의의를 인식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금차의 사변은 일본혁신의 일부이다. 자본주의 일본은 이 사변의 완결과 동시에 완전히 지양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자본주의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전으로서 동아의 신질서를 수립할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상실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자신의 행복적 발전을 의미하지 못하고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을 의미한다. 일본의 자본주의적 세력은 금차의 사변을 영도적으로 전개할 하등의 주체적 실력을 가지 못하니 실지에 있어서 금차 사변의 영도주체는 일본의 자본적 세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금차의 사변이 그러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으로써 귀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그 경제적 발전이 정돈되기 전에 그 체내에 오히려 왕성한 정력을 포장해 있으면서, 국내적 정치적 사상적 진로에서 완전히 ‘行詰ル’하고 무력해졌다. 이 점은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니, 이것이 일본민족사회의 개성이며, 전통이다. 이 특이성은 여하한 역사적 시대에서나 일본민족사회의 근거가 되어 있는 점이다. 즉 황실과 국민과의 특수한 결합의 전통은 일본의 여하한 역사사회에서나 그 국가적 국민적 생활의 중심이며 중추이다. 이 점을 도외시하고 일본을 인식하는 길은 없으니 문화의 개신, 메이지유신(明治維新), 금일의 혁신 등, 모든 국가, 국민생활의 중대한 변혁에 있어서 더구나 일본적 개성과 전통은 모든 발동력의 연원을 그 중심을 황실과 국민과의 특수한 관계에 구한다.

일본적인 전통과 개성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적 자본주의적인 일체의 생활양태에 반발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황도(皇道)사상, 황민(皇民)사상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는 상용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주의는, 일본정신은 원래로 자본주의를— 한다. 금일의 역사단계에 있어서 참으로 일본적 개성과 전통과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을 그리고 일본민족의 발전을 옹호하기 위하여는 일본은 필연적으로 자기혁신의 기점을 자본주의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 나아가서 자본주의를 부정한 일본민족의 국가의 흥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필연적 방향으로서 제국주의 아닌 대륙적 동아시아적 발전이 불가결의 조건이다. 팽창하는 일본민족은 그 경제생활의 욕구와 아우타루키적 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대륙에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아시아민족의 협동결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 점에서 일본의 혁신은 동아시아(東亞協同亞) 동체(東體) 신질서의 수립과 상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륜은 자본주의 일본으로서도 가능한 일이나 그것에는 제국주의적임을 요하고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적임에는 국내적으로 자본주의임을 요함으로 그것은 국내의 반자본의 제조조건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는 소이는 전술함과 같다.

여상(如上)한 제 점이 대륙경영이 혁신의 구체적 과정의 일부이며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반자본의 기초 위에 노여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소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신질서는 정복질서가 아니며 지배질서가 아니라 제민족 공존공영에 인한 협동질서이며 지도질서이다. 따라서 그 정치형태 경제형태 문화형태도 자본적, 제국주의적, 정복적이 아닐 것은 물론이다. 즉 동아시아신질서 내에 포괄되는 제민족사회는 그 자주적 이익이 존중되고 개성 전통, 문화가 한 가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것이나 새로히 형성되는 동아시아사상 동아시아전통 동아시아문화에 발전적으로 통일된다는 한계 안에서만 자주성이 인정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여기에 말하는 동아시아사상이란 이제야 형성 도정(道程)에 있는 신흥이데올로기이다. 지금 오인이 개념의 무정견한 종합을 시(試)하여 건강부회적으로 맞추어 생산하는 수예품이 될 수 없다. 동아시아민족의 실생활의 교착통일에서 생성발달하여 결정(結晶)되는 것임으로 그것은 장래의 범주이다. 다못 여기서 오인이 고려할 것은 동아시아사상이나 동아시아문화나 그 전통이나란 것은 그 모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제민족생활에 소재에 허터져 있는 묵은 지나적 만주적 몽고적 일본적인 등등의 문화적 잔해를 복고적으로 긁어 모으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서양적인 것을 무조건으로 배척하는 것으로써 동아시아적 문화, 사상의 창조의 조건을 삼어서는 안된다. 신통아문화 창조의 태도는 어데까지나 진보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할지니 소여(所興)의 신생활문화의 통일적 결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그 주체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민족의 문화는 필연으로 신통아문화의 배반(胚盤)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 금일의 일본민족문화 가운데에는 아세아의 여하한 민족의 그것보담도 풍부하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과거의 아세아문화의 각 부분이 통일성(일본적이지만)을 가지고 근대적으로 보존되어 있고 수호되어 있으며 사라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문화 자신 또한 신환경에 방목하여 이여(爾餘) 제민족의 그것에서 더 성육 발달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동아시아사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亦) 동일하니 금일의 일본정신이 일본민족사회를 혁신하는 지도원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나 기타 민족에게 그것이 전면적으로 이해 용납되기 어렵고 더구나 동아시아협동 민족생활의 지도원리로서 무조건 통용될 수 없는 점인 바 그것은 금일의 일본정신, 또는 일본주의는 좀더 근대화한 보편적 체계를 구유(具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본민족 이외의 민족으로서는 그것을 지성을 통하여 섭취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만치 전통적이고 감정적이고 혈액적이다

그리고 동아신질서의 세계사적 의의는 종래의 세계주의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종래의 세계주의가 추상적인 점은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맑스주의적인 것이나 동일하나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과 다른 외관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왕왕히 그 추상성이 엄폐되어 왔었는데 동아협동체는 그것에 대한 중대 정정(訂正)이며 신세계주의에 대하여 구체적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며 세계질서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이상에 본 바에 의하여 동아신질서와 일본의 혁신 양자 간에는 그러한 내면적 연관성과 교호성이 작용하고 있음으로 식인(識認)방법으로서 양자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사적으로 빛나는 동아의 신질서는 동아제민족의 행복을 약속하는 동아의 신질서는 일본의 국내혁신의 성과와 상사(相俟)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출전 : 車載貞, 「東亞協同體와 朝鮮-東亞新秩序와 革新」, 『三千里』 第11卷 1號, 1939년 1월, 64~68쪽)

21. 최규동(崔奎東)

1) 죽음으로 군은(君恩)에 보답한다

경성 중동학교장 최규동

오랫동안 기다리던 조선 동포에 대한 병역법의 실시가 확정되어 반도 2,400만 민중들도 드디어 1944년부터 병역에 복무하는 영예를 입게 되었다. 이는 조선 동포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념에 눈뜨고 진정으로 국체의 본의에 귀일해서 진충봉공(盡忠奉公)의 적성(赤誠)을 피력해온 결과 폐하의 수족이 될 만한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감사와 환희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돌이켜 보면 시정(施政) 이래 30여 년, 역대 천황은 항상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고마움, 대어심(大御心)을 반도 민초들에게 베푸시고 적자(赤子)와 같이 애무·육성하심으로써 오늘날의 영예를 반도 민중들에게 주시는 성려(聖慮)의 광대무변함에 참으로 황송하고 감격을 금할 길 없다. 반도 동포는 남녀노소 모두 이 영광에 감응하고 죽음으로써 군은(君恩)에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새로이 하고, 이제는 자애하고 분기해서 자신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 큰 충혼(忠魂)으로 성지(聖旨)를 받들어야 한다.

사람은 의무를 지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무한한 명예와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국방의 책무에 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남아 최고의 영예이다. 이 숭고한 의무와 영예가 조선 동포에게 부여되어 젊은 청년들이 용약(勇躍)해서 국방의 제일선에 나서는 길이 열린 것이다. 종래에는 자칫 반도 청년들 사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극적 생각·암울함 등의 소극성이 보였지만, 이러한 경향도 이번에 나온 획기적 시책인 징병제 실시 결정에 의해 완전히 불식되어 글자 그대로

로 활달한 기백과 자신감을 갖고 문무의 수련에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이고, 황국신민 연성 교육에 있어서 일대 추진력이 더해져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군무에 복무하고 군인정신을 몸소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황국신민 교육의 최후의 완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의 젊은 국민이 영광스러운 제국 군인으로서 빛나는 황군의 전통을 이어받아 훈련하고 군인에게 내려진 칙유(勅諭)를 체득한다면 과거 수백 년 동안 문약(文弱)의 기풍에서 기인하는 바의 책임 관념의 결핍, 끈기의 박약 등 갖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도 일소되어 본래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일본 내지와 조선의 두 민족이 형식상에서도 내용상에서도 일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징병제도의 실시가 2년 뒤라는 가까운 장래에 다가온 오늘날,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밤낮으로 청소년 학도의 지도에 임하면서 오로지 강고한 신념과 군인훈의 연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출전 : 崔奎東, 「死を以て君恩に報い奉る」, 『文教の朝鮮』 第201號
京城:朝鮮教育會, 1942년 6월, 29~31쪽〉

22. 최남선(崔南善)

1) 전쟁과 교육

전쟁이라 하면 무력 중심으로 생각함이 통레이지마는 그 관계의 부면(部面)과 영향의 범위는 무릇 생활과 및 문화의 전체에 걸쳐서 어느 무엇도 빠지는 것이 없다. 그럼으로 한 전쟁의 원인, 진행과 내지 결과를 시찰함에는 모든 각도로서 함을 요하며 또 어느 각도로부터 할지라도 거기 상응한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기를테면 이번 사변을 교육적 의미로써 관찰하는 것 가틈이 그 일레이다. 지나는 세계에서도 비류(比類)가 없는 노대국(老大國)인 동시에 4억이 넘는다는 그 국민은 그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기에 완명집요(頑冥執拗)하여 심상(尋常)한 방법으로는 그네들 근대 생활의 차안(此岸)으로 제도(濟度)해낸다는 수가 업게 생긴 군중(群衆)이다. 그러나 아편전쟁일세 영법연군(英法聯軍)일세 일청전역(日淸戰役)일세 북청사변(北淸事變)일세 내지 만주 급 상해사변일세 하여도 그것이다. 일시 국부적의 사건임에 그치고 하나도 국사의 심장과 인민의 뇌근(腦筋)을 잡아 흔드는 근본적 처단일 것이 업섯슴으로써 그때그때 일시의 난국만을 호도주무(糊塗罔繆)하고 나면 혼몽자대(昏夢自大)의 기습(氣習)은 의연히 고칠 줄을 몰라 왔섰다.

금차의 사변으로 말하면 종래의 모든 것과 아주 판판이여서 전선의 남북해륙 수만 리에 걸쳐 국부(國部)가 파괴되고 국사의 복심(腹心)이 공략되고 경제 급 교통의 동맥이 죄다 절단되고 연안 전부가 모조리 봉쇄되야서 문외(門外) 일보의 출입이 자유를 엿지 못하고서 일루(一縷)의 잔천(殘喘)이 겨우 궁협(窮峽)의 환토(丸土)에 감을감을 하니 일이 여기까지 이르고서야 아모리 무쇠신경의 그네라 하기로서

시대에 대하여 투철한 성오(省悟)가 나지 않는다는 수 것있습가. 이번 전사(戰事)는 여러 번 일본정부의 성명한 바와 가티 침략적이나 정복적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응징을 위함시오 각성식하기 위함임이 분명한 사실이어나와 이때까지 우역(禹域)의 대부분에 더한 철화(鐵火)의 세례는 이미 이 목적을 어지간히 도달하였스리라고 나는 본다. 곳 눈물에 축인 사랑의 채쪽살에 쓰라리기는 하지만 그 장야(長夜)의 혼몽(昏夢)을 깨침에는 이것이 도리혀 친절시오 지정(至情)임이 무론(毋論)이다. 매란 것은 따리기에 도 힘드지마는 귀여운 자제를 가르치려하매 수고를 도라보지 않는 것이다.

채쪽을 정면으로 붓잡고 나선 일본의 교훈은 무론이어나와 이번 사변의 교육적 의미는 일지(日支) 직접의 사이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순연(順緣), 역연(逆緣) 여러 가지로 근대 세계의 모든 요소가 죄다 덤벼서 지나의 근대화에 귀중한 자극을 부여하고 있음을 본다. '첵코'의 군기(軍器)와 소련의 비행기와 영불미(英米佛)의 무엇무엇들이 날로 축소축협(蹙少縮狹)히는 교통선상에서 피꼬로새 '루트'를 개척하여 가면서 근대의 문화와 세계의 호흡을 협운잔우(峽雲棧雨) 넘어의 깃흔 구석구석까지 취허주입(吹噓注入) 하기에 여력을 남기지 아니하는 것이 일면에 잇서서 어느 것이 교육적 의미에 대유(帶有)치 아니 하였다 하랴. 대저 금차 사변의 유래를 여러 가지로 고론(考論)하겠지마는 지나의 근대화하는 것도 분명히 일 명제임을 일치 안는다.

그런데 영불(英佛)의 부장(扶將)에 의한 서남지나의 개발은 이 부면(部面)에 잇는 두드러진 일체단(一體段)이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면 사변 진행의 교육적 의미에 잇는 피교육자는 결코 지나 국민뿐도 아니다. 고요히 사변의 표리전후를 절찰(節察)함으로써 국가의 융체(隆替)와 민족의 소장(消長)에 관한 역사철학 또 사회 이론적 관감흥기(觀感興起)도 무론이어나와 그 가장 사소한 방생적(旁生的) 일효과에 이러한 것도 잇을 것이다. 날마다 전국(戰局) 진행의 신문소보를 보아서 갈진대 보통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지나대륙의 지리에 관한 재교육이 극히 인상적 또 효과적으로 자연성취하여 가면 또 거기 대한 해설적 문자를 통해서는 우리 상식 구성의 중요한 인지(因地)가 되어 오는 지나 역사 내지 문학의 지식과 및 감흥이 나날히 시시로 재생 또 강화하여 간다. 남경(南京)이 함락하였다 하면 육조(六朝)의 연진(烟塵)을 생각하고 무한(武漢)이 실수(失守)하였다 하면 삼진(三鎮)의 번부(繁富)를 아리고 남창(南昌)이라면 왕효(王劼)의 재화(才華), 장사(長沙)라면 요의(要誼)의 억□(抑□)을 상기(想起)하는 것처럼 전국의 보도를 그대로 사과화(史課化) 시정화(詩情化)하는 교육적 효과를 붓잡을 수 있다. 혹시 말하기를 전국의 시관(詩觀)은 포연탄우(砲煙彈雨)에 사생(死生)을 □□잇는 용사에게 심히 안스러운 일이 아닐가 하겠지마는 지나 대륙은 우리의 금후를 맞긴 장기 건설의 일터로서 온갖 기회로써 그 인식을 깊히 하고 거기로의 관심을 굿세계 함은 도리혀 총후 임무의 의의잇는 일면인 것을 말할 수도 잇을 것이다.

금차의 사변은 희생이 만흔 것으로나 영향의 큰 것으로나 무엇으로 생각해서나 그 효과를 온전히 해야할 것이다. 온갖 의미에서의 성전(聖戰)을 만들든 시국인(時局人) 전체의 공통한 책임이다. 이 중에 잇서서도 그 교육적 의미 효과 깊고 크고 온전케 함이 가장 근본적 또 영구성의 것이 아닐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고 지낸다.

〈출전 : 崔南善, 「戰爭과 教育」, 『三千里』 1939년 7월호, 58~60쪽〉

2) 아세아의 해방

이 세기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겠느냐 하건대 우리는 아세아의 해방이 되리라고 하고싶다. 아세아는 지구 육지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세계인구의 과반(過半)을 가지고 인류문화의 최고(最古) 또 최대 연원(淵源)을 짓는 자(者)이어늘 명실히 완전한 독립자주국은 일본(日本)하나 밖에 없으며 그 나머지는 3백년 이래(以來)로 차차 구미의 식민지 혹은 반(半)식민지를 이루어서 그악한 질곡(桎梏)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소이(所以)를 그 도덕성에 둔다고 하면 인류의 대부분이 그 소부분의 압박(壓迫)대상으로 있는 패륜현상은 진실로 인류자신의 죄악, 또 치욕일 밖에 없다. 그래서 아세아의 해방에 말미암는 인류평등의 실현은 문화발전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역사적 양심의 최고명령으로 나타날 약속을 가진 것이요, 오늘은 정(正)히 그때에 다다른 것이다. 저 육지발전 과학발달 자유정신발양 국민주의발흥 등의 기와 여러 세기(世紀)의 그것들 보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총합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과제야말로 진실로 이 아세아의 해방임을 누가 아니라 할 자이나.

인류의 역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전일(全一)을 구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계를 통동(通同)하는 계단에 이르지 못하고 극히 굽게 뭉쳐서라도 동양 서양이 두 덩어리가 따로 따로 분리 대립함을 가질 수가 없다. 교통기관의 발달은 사실상으로 사해(四海)를 일가화(一家化)하고 무선전신의 응용은 전 인류의 조석(朝夕)대담을 거칠 새 없이하여 인류의 기술은 벌써 세계의 일체를 실현하였거늘 역사의 궤도만은 의연히 원심적 배주(背走)를 고집하고 있음은 인류의 정신이 그 손끝보다 저열(低劣)함을 보이는 사실이다. 더구나 동양과 서양이 일방은 피압제자, 피착취자라는 비윤리적 대립상을 정(呈)하고 있음은 인류의 양심이 오히려 둔미(鈍微)함을 나타내는 큰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적 장애, 내재적 모순을 제거한 뒤가 아니면 세계사의 출현은 물론 기대할 수 없다. 이럼으로 아세아의 해방은 다만 아세아적 입장 뿐 아니라 진실로 인류적, 세계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인류가 '세계'라는 일원성(一元性)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과거에 있어서 인류역사의 일대 추진력이 된 동서양방의 반발작용과 같음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것 그대로 '세계'를 만들기 위하는 견인작용, 접근작용에 불외(不外)하는 것이다. 저 상고(上古)에 있는 아세아 대희랍의 항쟁으로부터 '알렉산더'의 인도(印度)방면 정벌, '폼페이우스'의 동방제국 경략(經略)과 같은 서방의 동진(東進)과 '훈'인, '사라센'인, 몽고인 등의 굽치를 이은 구라파 침입과 같은 동방의 서진(西進)등에서 보는 것처럼 동서의 대항성 접근작용은 연대(年代)와 함께 그 세(勢)를 돋우기도 하고 또 범위를 확대하여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상호반발은 실상 종필귀일(終必歸一)한 본능적 약속을 개현(開顯)하여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근세에 들어와서 해항술의 진보와 탐험욕의 증상(增上)을 계기로 하여 구라파인의 동양진출이 대규모로 일행되고 그 결과로 근대국력의 표상인 물질문명 기계기술의 낙후자인 동양민국이 이른바 제국주의 또 자본주의적 침략의 희생을 이뤄서 길게는 동인도상회(東印度商會) 이래 3백년의 비운이 전 동아를 내습(來襲)하여 빠르게는 아편전쟁 이후 1백년의 탐서(貪筮)가 극동 일대를 능학(凌虐)된 것도 그 이면적 소식을 더듬어 볼진대 종래에 여러 번 있어오는 서방동진의 점증적 일 양상으로서 또한 인류역사의 '세계'실현상에 있는 필요한 일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한번은 한번보다 더한 서방의 동진은 그럴 때마다 그보다 더 큰 동방의 반발로써 수응(酬應)됨이 과거역사의

통태(通態)이었다. 최근에 있는 구라파 내지 그 연장으로 인 미주(美洲)세력의 동아(東亞)침입이 공전(空前)한 대구모의 것이요, 영향이 심각을 극(極)한 만큼 동아편의 구미진출에 대한 반발작용도 또한 공전한 강대성을 띠어올 것은 또한 자연한 수(數)이다. 이제 그것이 일본국민을 선수로 하고 대동아전을 무대로 하여 우리들의 발 앞에 그 썩썩한 보취(步趣)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전(戰)은 결코 일본만이 전쟁이 아니요, 또다른 어느 일국민, 일민족 대 타국민족과의 투쟁도 아니라 진실로 일본 및 일본정신을 발단자, 또 중추세력, 또 지도원리로 하는 전동아의 해방운동이요, 이 동아해방운동은 그대로 곧 세계개조의 중대한 사안인 동시에 인류역사의 '세계'화를 현전(現前)케 하는 기연(機緣)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솔렐'성(性)과 인류적 보편타당성으로써 본질을 삼는지라 대동아전은 가깝게는 전(全)동아 10억 대중의 협심육력(協心戮力)까지를 대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아인으로는 의(義)에 용(勇)하며 세계인으로는 진리에 충(忠)해야 다함께 진정한 '세계'사의 첫장을 도의로써 기록하기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대동아 선전(宣戰)의 대조(大詔)는 병호(炳乎)히 일월(日月)로 더불어 광(光)을 한가지 하시거늘 개전(開戰) 양기(兩基)의 사실은 드디어 10억 대중의 의신(倚信)을 표명하는 '대동아선언'으로써 줄타키 상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동아전은 그 최후의 결말까지를 기다릴 것 없이 이미 아세아해방이 본 목적을 달성한 관(觀)이 있다. 앞으로 설사 약간의 곡절과 진퇴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계'의 신역사는 이미 권두(卷頭)를 열고서 다만 1장(章) 또 1절(節)씩, 신(新)경과 신(新)사실을 거듭해 나가게 되었다. 저 근세에 있는 구라파의 동침(東侵)과 여기에 대한 이번 대동아전이 반발은 둘이다. 서방 또 동방으로서 하는 견인(牽引)접근으로서 이번의 일촉발이 문득 동서를 혼(混)하고 세계를 통향(通向)하는 신기운을 출현할 것은 인류 전역사의 시사(示唆)로써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전주곡은 전 동아 10억 대중의 완전한 해방, 너나없이 기소(基所)를 각대(各待)하고 기도(基堵)를 각안(各安)해야 팔굉위우(八紘爲宇)의 실(實)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동아전은 역사적 사명의 수행일새 여기 성공이 약속되며 대동아전은 진리와 함께 진행함일새 여기 승리가 확보된다. 천하에 진리와 함께 있는 자(者)보다 더 강할 자가 없다. 대동아전이 그것이다. 천하가 악호(惡乎)에 정(定)하라. 일(一)에가서 정(定)할 것이다. 일(一)이란 무엇인가. 만방(萬邦)에 본연한 지위를 주고 만민에게 정당한 발전을 약속하는 진리가 그것이다. 대동아전이 그것이다. 그래 그것이다.

〈출전 : 崔南善, 「亞細亞의 解放」, 『매일신보』, 1944년 1월 1일〉

3) 성전(聖戰)의 설문

1.

성전(聖戰)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기에 성(聖)자의 설문(說文)적 관찰이 매우 단적 명쾌함을 우리는 느낀다. 성(聖)이란 자는 3개의 요소로써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귀 이(耳)이니, 이(耳)는 위(上)로 천성(天聲)을 듣고 아래(下)로 민의(民意)를 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성은 곧 정의에 편드는 진리 및 양심의 명령이니 저 세계역사의 귀추로부터 현세기의 과제가 되어 있는 아시아의 해방 같음이 그것이

다. 그리고 대동아전에 있어서 미영(米英)의 질곡에 우는 동아 10억 대중의 축원을 들어준은 또 민의의 수찰(垂察)에 있는 최대 총명(聰明)일밖에 없다.

2.

둘째 입 구(口)는 진리와 양심이 명하는 바를 실행의 목표로서, 소소(昭昭)히 계출(揭出)하여 파사현정(波邪顯正),⁸¹⁾ 차악양선(遮惡揚善)의 군호를 삼는 것이다.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동아의 안정을 확보하여 참으로 만방공영의 세계질서를 확립하리라 하신 선전(宣戰)의 대조(大詔)가 앞에 속포(肅布)되고, 여기 재성탄양(齋聲嘆仰)과 협심익찬(協心翼贊)의 성의를 표백한 대동아회의의 공동선언이 뒤조차 승호(嵩呼)된 것은 바로 돈륜성왕(惇輪聖王)의 진두(陳頭)에서만 들을 수 있는 대사자후라고 이를 것이다.

3.

셋째 임(壬 : 정(楨)자와 같음)은 진리와 양심의 권위로서, 소할집단(所轄集團)의 지도에 임하는 통수자의 몽둥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곧 고매한 지위에서 권력으로써 대중을 지도하는 어른이 성(聖)이라는 말이다. 위대한 사업일수록 거기 상응한 지도원리 및 지도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늘, 대동아전에는 팔굉위우(八紘爲宇)의 대정신과 아울러 그를 실현하기에 족한 일본제국의 실력이 있어서 신뢰와 향응이 나날이 심후(深厚)를 더하여 감은 새로 별변(譬辯)을 요할 것도 없는 것이다.

4.

성전을 이념적으로 변증하거나 역사적으로 논구함은 다 그 사람이 따로 있거니와 대동아전의 원인과 경과와 귀추에 비추어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르는 것이 자학상(字學上)으로 매우 타당함을 애로라지⁸²⁾ 거사(舉似)하고 싶다.

〈출전 : 崔南善, 「聖戰의 說文」, 『新時代』 4卷 2號, 1944년 2월, 20~21쪽〉

23. 한상룡(韓相龍)

1) 만주사변 5주년을 맞아

(1936년 9월 17일 경성방송국 기념 강연)

오늘은 마침 만주사변 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저는 그 기념 강연으로 여러분에게 한 마디 말씀드릴 수 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81)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냄.

82)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감개무량

과거 1931년 9월 18일 만주사건의 돌발은 마치 어제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당시 우리는 그 통신을 받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애당초 만주사변의 돌발 동기 및 원인은 각위(各位)가 잘 알고 계시는 바이기도 하고, 저도 1주년과 3주년 당일 기념으로 방송국 혹은 강연회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인(天人) 공히 인정하다

일본은 과거 40년 이래 일청·일러전쟁이라는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루면서 다수의 인명을 희생했고 막대한 재산을 낭비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제국의 융성·동양의 평화·만주국의 존립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천인(天人) 공히 이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만주국은 1932년 3월 10일 건설되었고, 그 이후 천명을 받들고 민의에 따라 1934년 3월 1일 국체를 확정하고 황제폐하께서 등극하신 일은 동양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참으로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34년 6월 지치부노미야(秩父宮) 전하께서는 천황폐하의 대리로서 만주국을 친히 방문하시고, 나아가 1935년 4월 만주국 황제폐하께서 일본에 내방하시어 양국 황실의 친목을 도모하시고, 국민의 화친은 한층 더 긴밀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절대적인 원조

생각건대 만주국의 신흥정신은 구래의 암흑정치, 즉 동북정권 시대의 악정으로 신음하는 만몽(滿蒙) 3,000만 민중을 구원하고 오족(즉 만·한·몽·일·선)협화의 낙토 건설을 행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정치를 실시해 세계에 화친을 구하고 신의를 쌓는 등의 주의(主義)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의 절대적인 지도와 후원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만주국은 국방·경제·건국의 본질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주국에는 강력한 정부가 수립되어 중앙집권주의 아래 백반의 문물제도를 완전히 세워서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주국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시정(施政)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본인 관리들이 각처에 배치되어 건주(建籌)·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현저합니다.

사변 이래의 전사자·부상자

양국의 불가분의 관계에 의해 각종 협정 및 성명이 체결 또는 발표되었습니다. 1932년 9월 15일 일본 정부는 만주국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만주 양국의 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1933년 3월 27일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1935년 7월 15일 일본·만주 경제공동위원회가 신징(新京)에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만주국 치외법권의 철폐 및 부속지 행정권의 조정 매지 이양에 관한 방침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중의에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4일 만주국 국폐(國幣)가치의 안정 및 화폐제도 통일·협력을 위한 지원방침을 각료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1936년 6월 10일 만주에서의 일본국 신민의 거주 및 만주국의 과세 등에 관한 일본·만주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은 공동 정신·동일한 주의 아래 진정 순치보거(脣齒輔車)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주국 건설 이래 그 실적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래 만주에는 녹림호걸(綠林豪傑)이라 할까요, 백귀야행(百鬼夜行)의 지방도 있어서 생명과 재산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건국 이후에는 일본의 황운(皇運)은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것 외에 치안을 단속하고 치안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전면적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군을 지휘해서 공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변 발발 이래 올해 7월까지 황군(皇軍)의 전사사 약 2,900명, 병사자 1,040명, 부상자 6,700명, 만주군의 전사자는 1,760명, 부상자 1,880명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적(匪賊)은 사변 직후에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과 2만 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체적으로 치안은 큰 우려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속적 노력으로 변경 벽지 지방에서도 행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화(王化)를 균점(均霑)케 하도록 희망하는 바입니다.

재정의 호조

만주국의 재정은 예산제도를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방침을 세워 치안 안정·내정 정비와 더불어 재정은 매년 팽창하여 건국 후 4년 만에 그 예산액은 당초의 배가 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유지하고 흑자재정의 건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1936년도의 예산을 보면 세입 총액 약 2억 2,000만 엔으로, 세출도 같은 액수입니다. 세출 중에는 황군 국방비도 다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화폐제도는 만주의 특수사정에 기초하여 은본위에 따른 통화의 통일을 도모하고, 이는 1934년에 정리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에 국폐가치의 안정과 통화통일 및 금원(金圓)과 국폐의 등가 유지 방책이 강구되어 제국정부도 힘이 닿는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국 정부는 1935년 11월 말에 외환관리법을 공포하고 국폐의 투기매매를 금지하고 자본 도피를 방지, 금은의 보합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폐의 대일 외환상장의 안정을 가져와 제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용지는 안정·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보자면 만주 주요도시의 예금액은 1931년 1억 3,300만 원이던 것이 1934년 2억 5,500만 원, 대출액은 1931년 1억 7,600만 원이던 것이 1934년 2억 6,400만 원으로 모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무역과 투자

무역은 1931년 수출 7억 원, 수입 3억 원이던 것이 1935년에는 수출 4억 원, 수입 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본이 71.9%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 3.4%, 중화민국 5.3%, 미국 4.1% 등이고, 수출에서

는 일본 43.6%, 조선 8%, 중화민국 15.5%, 독일 7.8%, 미국 3.7%입니다.

경제 건설 방침은 자유무역주의에서 자주적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동향을 고려해 동아 경제의 융합·합리를 목표로 삼아 일본과의 협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통제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고려해 소요 국가통제를 통해 자본의 효과를 활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활달한 발달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변 이래 1935년 말까지 일본 자본에 의해 만주에 설립된 회사 수는 250개를 넘었고 그 자본 총액은 약 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변 이전 일본의 만주에 대한 투자는 약 17억 원으로, 러시아의 5억 9,000만 원(북철(北鐵) 양도로 현재는 격감했습니다), 영국의 4,000만 원, 미국의 3,000만 원, 프랑스의 2,500만 원 등에 비해 각국의 만주에 대한 투자 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외투자액에서 보면 약 60%에 해당하고 있어서 만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시장이었습니다. 그 뒤 만주의 건국 이래 일본의 만주에 대한 투자는 더욱 급증해 주식·사채·공채 등의 직접적 투자 약 8억 원 외에 간접적 투자를 더하면 합계 10억 원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서 도로망·통신망·철도망의 건설, 시가지·항만·토목 기타 모든 경제적·문화적 시설은 착실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만주의 일본인은 사변 이래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지인은 1930년 말에는 23만 명이었으나 1935년 말에는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선인은 사변 이후 약 23만 명 증가한 모양입니다. 사변 이후 합계 약 49만 명이 증가했다는 계산입니다.

이주와 개척

만주의 이민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만주국 건설의 본질상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이상향을 출현시키기 위해, 또 일본과 만주의 불가분의 관계를 영구히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조선인의 이민은 절대 필요합니다. 제국의 인구는 일본·조선 합쳐서 매년 100만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지의 농촌 한 가구당 경지면적은 평균 9단(段) 3보(步)이고, 미국의 경지 평균 면적의 약 6분의 1, 캐나다의 약 9분의 1, 독일의 7분의 1, 덴마크의 16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인의 한 가구당 경지면적도 1정(町) 4단(그중에서 수전 5단)으로 역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조선인은 종래 다수 만주에 이주해서 일찍부터 수전 개척을 했고 만주의 개척자라 불릴 만합니다. 만주는 경지가 넓고 낙토건설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인·조선인이 만주에 가서 경제적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일찍이 만주척식주식회사의 창업이 있었고, 최근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植柱式會社)을 설립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만들 시설이라고 봅니다.

만주국과 대외관계

만주의 발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세계 각국은 여전히 인식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한 것은 로마교황청과 살바도르공화국뿐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러나 작년 3월 만주국 정부가 제국정부의 알선으로 소련연방으로부터 북만철도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만주국 내의 철도 정책상 신기원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독일 경제사절단 일행이 내방한 결과 만주물산인 공의 독일 수출 촉진에 관한 협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영국·프랑스·벨기에 등의 사업가들도 만주국과의 경제적 접촉을 희망하고 경제사절의 파견, 기타 방법에 의해 만주에 대한 투자·무역의 촉진책을 조사 연구하고 또 우정(郵政)사업에 있어서도 우편 교환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 세계 민족의 낙토

중화민국도 아직 정식 승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만주·중국 간에 실질적으로는 차량·우편·전신·전화 연락 등의 실질적인 방법이 채용되어 있고 교역을 일상화해서 만리장성 내외의 경제적·문화적 융통과 제휴가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이후 탄생한 기동방공자치정부(冀東防共自治政府)·기찰정무위원회(冀察政務委員會)는 앞으로 어떻게 발육·발전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만주 양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기쁜 일입니다.

만주국 창립 이래 조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도 역시 명랑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웬지 여유로운 느낌이 듭니다.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이를테면 앞날이 확 열렸다는 느낌입니다. 인심도 안정되었고 경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조선인의 큰 공적

만주국 건설은 오족협화주의에 따른 것인데 동아민족의 협화낙향(協和樂鄉)입니다. 이상향입니다. 저는 1932년 3월 만주 시찰 당시 집정 전하, 지금의 황제폐하를 배알했을 때 집정 전하께서 만주국 내의 조선인은 가능한 보호 지도를 할 것이고 단지 조선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감격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주국은 단지 만·몽·한민족 및 야마토민족(大和民族⁸³⁾·조선민족만의 낙토가 아니라 동아민족, 아니 세계 민족의 낙토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선민족은 어떤 원인 때문인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만주에 이주해서 자식을 낳고 자손을 낳아 제2의 고향이 되어서, 잠정적인 거류지와는 달리 인간이 가는 곳 청산이 있다는 느낌과 방침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풍토와 기후가 다른 낯선 곳에 와서 다정한 친척들과 헤어지고

83) 일본민족.

그리운 부모의 묘소를 떠나 멀리 타향에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이주자들은 거의 경제적 빈곤, 생활이 곤란한 빈자·약자들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만주에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난(艱難)을 겪으면서 만주 개척에 노력한 것입니다. 만주의 수륙도(水陸稻) 1년에 42만 톤 수확, 그 가운데 수도(水稻) 29만 톤은 아마 조선인의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은 만주 개발의 '파이오니아'입니다. 공로자입니다.

지금 만주의 인구는 3,000만 명이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희박한 인구나 황량한 황무지에 와서 삽과 호미를 들고 가시나무를 뽑고 밭을 일구어 겨우 목숨을 연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궁하면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궁한데도 올바른 사람은 드뭅니다.

2000년 전 나사렛의 어느 성자가 갈파한 것처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정의와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인간은 역시 옷과 먹을거리가 있어야 예절을 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순리입니다. 자연입니다.

정의와 이상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 중에서도 궁핍한 생활 때문에 옳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분의 행위를 보고 전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속단입니다. 때로는 조선인 만주 이주자들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이에 대해서는 대국적인 관점과 아량으로 포용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과를 논하고 상벌을 명확히 하고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만주에 건너온 조선인은 70만, 혹은 100만, 150만, 2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상당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동북정권 시절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관민의 압박, 군정의 학살, 약탈·주구·불법징세 등으로 재산과 생명을 빼앗긴 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만주 낙토가 만들어졌으니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앞날은 광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장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만 조선인 동포는 물론 조선 내지에 있는 우리도 한층 더 노력·근면할 시기입니다.

미나미(南) 총독의 고마운 성명

지난 번 미나미 총독이 조선에 부임했을 때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목하 중점은 만주국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더욱 증가시키는 데 근저가 있습니다. 그 만주국과 조선은 접양(接壤), 따라서 조선의 모든 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중대합니다. 우리는 이 반도에서 국책 수행의 중심이 되어 위국(危局)을 광휘(光輝) 있는 앞날을 열어가기 위해 서로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각자 본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읽고 참으로 감격해서 우리 책임이 중대함을 더욱 자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만주 무역관계

우리는 이웃나라 만주국에 대해 화합하고 친밀하게 제휴·매진해야 합니다. 사람은 힘으로 활동하고 힘으로 생활합니다. 힘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근면·노력만 한다면 힘은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활동하기 쉽고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근면·노력합시다. 여기서 조선·만주 무역을 살펴보면 1931년 조선에서 만주로의 수출액은 1,060만 원이던 것이 1935년에는 2,250만 원이 되었고, 만주에서 조선으로의 수입액은 1931년 3,670만 원이던 것이 1935년 3,380만 원으로, 수출은 배로 증가했고 수입은 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의 만주 이주자는 사변 이후 불과 5년 만에 약 2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물론 비근한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전적으로 조선에 힘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국가의 힘은 곧 국민의 힘입니다. 참으로 경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조선의 힘이 더욱 증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엄연(儼然)한 태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 건설에 대해 세계 각국은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일본을 대하고 있을까요? 각국의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국제의 정의·도덕의 미명 아래, 실은 시의·질투, 혹은 리턴 경 보고서, 혹은 연맹의 결의 등을 통해 백방으로 방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연하게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용왕(勇往) 매진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로써 만주는 만몽(滿蒙)의 낙천지(樂天地)이고, 동아시아의 이상향이며, 동양의 평화를 다지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로 통쾌·환희하지 않을 수 없고, 만주국, 또 동양을 위해 경하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만주사변 5주년을 맞이하여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전 : 韓相龍 「滿洲事變五周年に當りて」, 『朝鮮實業俱樂部』 第144號, 1936년 10월, 41~49쪽)

24. 함상훈(咸尙勳)

1) 시국해설 - 세계정국의 동향

1. 독소전쟁 진전

6월 22일 이른 새벽을 기하여 개시된 독소전쟁은 세계인류가 창생한지 처음되는 대규모의 대치참한 전투를 연출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동원된 병원(兵員) 각 천만, 비행기 각 2만, 전차 각 2만, 총포

탄약 각 무한량으로 사상(死傷) 포로만 최저한 각 1백만 내지 3백만으로 추상된다. 당초 독일이 소련에 선전을 포고한 동기는 독일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보이므로 소련을 쳐서 우크라이나의 식량과 코카사스의 석유를 획득하려함에 있었으니 소련이 독일의 동부국경에 대군을 집결하여 독일의 배후를 협위했다함은 히틀러 독일총통의 대소선전의 이유였다. 이리하여 독일은 처음에는 소련의 전투력을 극히 과소평가하여 소련을 7주일 안에 석권한다, 심지어 혹자는 3주일에 모스크바를 함락시킨다 호언하였다.

그러나 실제전투에 당해보니 소련은 의외로 강대하여 대고대고 병원을 동원하여 천만 명 이상의 병력을 서부전선에 집결하고 비행기, 전차, 기타 대포탄약을 무제한으로 수급하여 소위 스탈린선에서 독일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의 정예 앞에는 아무리 소련의 대군으로서 완전히 방어할 수 없어 양군에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 퇴각을 거듭하였다. 이리하여 7월 말에는 독일은 이미 스몰렌스크를 점령하였으며 8월 말에는 오데사 및 레닌그라드의 근교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소련 측도 막대한 병력과 병기를 끌어내어 방비에 사력을 하였으므로 모스크바를 향하는 중부군과 레닌그라드를 목표로 북부군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독일군은 전술을 고쳐 점령지대 내의 대군과 루마니아(羅馬尼), 헝가리(匈牙利) 등의 연합군을 몰아가지고 남부 우크라이나로 대진격을 개시하여 키예프, 하리코프를 점령하고 2대로 분하여 일대는 동남 우크라이나를 깊이 침입하여 스탈린그라드 로스토프를 향하고 일대는 동북으로 모스크바를 향하여 오리요르, 루라로 진격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북부군을 칼리닌으로, 스몰렌스크의 중부군은 브야지마로 진입하여 모스크바를 포위하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소련은 다소 당황한 듯이 북부군 총사령관 보로시코프 원수와 남부군총사령관 부존누이 원수를 파면하고 남부군에는 치모셴코 원수를, 중앙군에는 주코프 참모총장을 임명하고 새로 모스크바 방위사령관을 임명하고 수부를 퀴비세프로 이전하고 극동으로부터 대부대를 이동시켜 모스크바 방호에 급급한다.

이리하여 11월 초순 지나 엄한기에 들어왔으므로 중부이북에서는 대규모의 전투가 전개될 것 같지 않지만 남부 즉 크리미아 반도 및 코카서스의 전투는 진전할 것이다.

이미 히틀러 총통은 소련과의 전투가 일단락된 것을 고하고 금후는 근동작전(近東作戰)을 하려는지 북하작전(北阿作戰)을 하려는지 알 수 없으나 비행기 같은 것이 다수 동부전선에서 철거되었다 하니 이번 겨울은 이것으로써 일단락이 된 모양이오, 결전은 다음 해 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레닌그라드 모스크바의 공업지대와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철공업지대가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오고 점령지대의 철도 중 1만7천 킬로미터가 독일국유철도와 동일궤도로 부환(敷換)하고, 소련의 병력, 무기가 대타격을 입은 금일 소련이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독군을 소련국경선 외로 구축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2. 독일전쟁 및 독미관계

독소전이 개시된 이래 독일전쟁은 일시 돈좌(頓挫)된 감이 없지 않다. 처칠 영수상이 하원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3,4,5,6 4개월간 영국함선의 소실은 200만 톤, 월평균 50만 톤이었는데 7,8,9,10의 4개월간의 손실은 70만 톤으로 월평균 18만 톤에 불과하다하였으니 독 공군과 잠수함의 활약이 전만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영국의 대독 공격도 이렇다 할 것이 없고 공군이 대거 편대비행을 하여 독본국 각도시를 폭격한 것과 해군이 이탈리아 함대를 공격한 것과 동아에서 프랑스령 소마리란드를 공격한 것 밖에는 드러난 것이 없다. 영국은 독소전을 영국의 대독전투력 보강의 절호의 기회라 하여 성히 미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고 국내의 생산력을 확충하고 군비를 확장하여 독소전후 장차 오게 될 독일의 공격에 만전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9월 초경 대서양상에서 루스벨트대통령과 회담한 후는 8개조의 세계적질서회복의 지표를 발표하여 민주주의국으로 금차 패망한 국가에 실망치 말 것을 절규하고 모스크바에 영미소회담을 개최하고 대소원조를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이란을 협박하여 듣지 않으면 소련과 협력하여 이란을 남북으로 양군이 침입하여 영소연락로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대소원조물자를 공급하고 노르웨이(諾威)의 북해안 날뷔크에 일시 상륙하였다가 북로백해(北露白海)의 아르항겔스항을 통하여 비행기 전차 등을 수송했다. 그러나 영미의 대소원조는 소리만 높고 그 질은 그렇지 못하니 비록 거리의 원대한 것과 물자의 부족으로 다량으로 못한다지만 미국의 의도는 영국을 패망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련을 이용하는 것이니 원조를 대규모로 못함은 그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30억 파운드의 무기대여법안을 통과시키고 중립법을 개정하여 상선을 무장하고 수도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그리야호 등의 격침사건을 기회로 발포명령을 발하여 독미관계는 협약하여 국교단절의 위기에까지 절박하였다. 독일도 미국함정이 교전구역 내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격침할 것을 선언하고 전기 함정을 포격, 격침하였으나 히 총통이 어디까지든지 대미감정을 자극치 않기에 노력하여 그 연설중에도 미국을 공격치 않고 있으나 독소전이 일단락지면 독미관계가 한층 협약화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3. 세계주시의 일미교섭

제국이 대중국 군사행동을 개시한지 이미 5년, 전과는 나날이 확대하여 중국 400여 주가 황군의 위압하에 있으며 제일선부대는 멀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단에까지 진주하고 국민정부는 일익 그 기초를 공고히 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은 착착 진행중에 있거니와 사변 이래 사사건건이 황군의 행동에 간섭하고 장개석(蔣介石)정권을 도와 제국의 신동아질서 건설을 방해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다.

그중에도 미국은 유럽전쟁에 석권되지 않았음을 호기로 장정권에 거액의 차관 대여하며 무기탄약을 수송하고 제국에 대하여는 통상항해조약의 폐안, 비행기 기타 무기의 수출금지를 단행하고, 작년 9월 일독이 삼국동맹이 성립된 후로는 설철(屑鐵)⁸⁴⁾수출을 금지하고 금년 7월 남불인(南佛印)에 황군이 진주하자 석유의 금지 자금동결령의 발포로 전면적 경제봉쇄를 감행하였다.

제국은 사변발생이래 누차에 걸쳐 금차의 중일전쟁은 중국을 점하려 함이 아니오, 고노에(近衛) 성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배상, 비영토, 공동방공, 경제적 지도의 삼원칙을 주로 동아제국의 공존공영을 목적하는 것이다. 따라 외국의 기득권익도 존중한다 성명하였고, 동아공영권의 확립도 영(英)미(米)불(佛: 프랑스)란(蘭: 네덜란드)의 세력구축이 아니오, 이들 남양제국과 경제적 공존공영을 목표로한 것이

84) 고철을 뜻함.

라 함을 성명하였지만 미국은 이것이 9개국조약 위반이니 기득권익의 위반이니 혹은 나치스와 같이 동
아에서 일본이 독점적으로 점령할 의도니 하여 전기 각개의 수단을 설사 없이 단행하고 영(英)장(蔣 :
장개석 국민정부)란(蘭 : 네덜란드)제국을 사주하여 소위 ABCD포위진을 치고 제국을 위협하려한다.

이에 있어 제국은 8월 28일 고노에 수상의 이름으로 대미 메시지를 보내어 일미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태평양문제를 해결하자 제의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매우 양보적이었다고 하는데 미
국은 하등 이에 성의있는 회답을 하지 않고 제국의 요구하는 근본문제에 대하여 동의치 않는 모양이다.

이에 있어 제국은 고노에 내각이 퇴진하고 도조(東條) 신내각이 성립되어 최후로 미국의 반성을 촉
구하기로 되었으니 노무라(野村) 대사, 와카스기(若杉) 공사 외에 구르스(來栖) 대사를 다시 더 파견하
여 절충을 하기로 하고 대내적으로 임시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거국적 지지의 태도를 나타내기로 되
었다. 그러나 미국서는 하등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녹스 해군장관 같은 이는 일미전쟁은 불가피
라하고 각 신문은 영수상의 반일연설을 극구칭양하여 게재하고 있다.

미영이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일부러 극동에까지 멀리 와서 경제적 독점을 안해도 무
관하련만 강욕(強慾)한 영미는 제국의 동아공영권의 이상을 무시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무력으로까지
대항하려한다. 미국으로서는 독일과의 관계로 전해군력을 서태평양해면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영국은 구
주전쟁관계로 대함대를 극동에 파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실력을 무시하고 끝끝내 도전적
태도를 취함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하여 비탄할 일이다.

이미 구르스 대사는 워싱턴(華府)에 도착할 시일이 되었고, 세상에 나갈 때 쯤 하여서는 일미 간에
어떠한 해결을 보거나 태평양의 파도가 더 높아지거나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제국의 동아의 엄연한
존재를 확인하고 제국의 요구를 듣는다면 모르지만 완강히 자국의사를 고집한다면 태평양은 태평치 못
하고 말 것이다.

(11월 14일 기)

<출전 : 咸尙勳, 「時局解説 - 世界政局의 動向」, 『半島の光』 第50號, 1942년 1월, 10~11쪽>

2) 시국해설 - 대동아전쟁

1. 대미영(對米英) 선전포고

1941년 12월 8일 제국은 미, 영 양국에 선전을 포고하는 동시에 하와이(布哇), 괌, 미드웨이, 필리핀
(比律賓), 상해(上海), 홍콩(香港), 말레이(馬來) 등 미영 각 영토에 전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작전은 매우
기효(奇効)를 나타내어 해군항공대는 작전 첫날에 하와이 진주만 내 미 주력함 5척을 격침하고, 주력함
4척을 격파하고 순양함(巡洋艦), 특무함(特務艦) 등 3척을 격침파하였으며 작전 제2일에 말레이 동안
관랑 근해(近海)에서 영 주력함 프린스·오브·웰스(3만5천 톤)호와 래팔스(3만2천 톤)호의 2척을 격침
하고, 육군부대는 개전 초일에 괌, 미드웨이, 말레이 북안 상륙에 성공하고 연(連)하여 필리핀, 보르네
오 상륙에도 성공하였으며 카우룽(九龍)부근의 육군은 일주간 내에 카우룽을 점령하고 2주 이내에 홍

공을 함락시켰다. 전쟁은 황군에 절대유리하게 전개되어 이글을 쓰는 찰나까지의 전과로는 이미 필리핀 제도(比島)의 수부(首府) 마닐라를 함락시키고 서부 바타안 반도 및 코레히도섬 요새를 맹공중이며 말레이의 황군은 동은 관랑을 점령하고서는 폐낭(彼南), 이포, 세탄골을 점령하여 싱가포르(新嘉坡)까지 불과 800리 밖에 안 남게 되었으며 보르네오 상륙에 성공한 부대는 일익전과를 확대하면서 비친 등 유전지대(油田地帶)를 점령 중이다. 그간 적의 항공기를 격파하기 무려 1천 공군근거지, 수송선단을 격파하기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미 영미의 동아에 있어서의 아성 홍콩, 마닐라(馬尼刺)가 함락된지라 싱가포르, 랑군(蘭貢)의 운명도 멀지않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2. 대미영 선전의 이유

대제국국은 어째서 미영에 선전을 포고하고 전투를 개시했는가. 전 월호에 필자는 일미회담이 극히 중요단계에 들어간 것을 지적하고 그 글이 세상에 나올 때는 이미 태평양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태평양의 파도가 높으리라 예언했거니와 실로 이번 태평양전쟁의 근본이유는 미영이 동아에 있어서의 제국의 패권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의한 것이다. 즉 일미회담은 작년 4월부터 되었는데 그 요점은 제국은 미국에 대하여 중국 및 동아전역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 것을 인정하라, 이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장개석(蔣介石)정권의 원조를 중지하고 대일경제봉쇄를 완화하라하였음에 대하여 미국은 끝까지 중국 및 동아의 현상불변경을 주장하고 1) 중국에 있어서 장정권 이외에 아무 정권도 지지치 말고 2) 중국에 있는 황군을 무조건 격퇴하며 3) 삼국동맹에서 탈퇴하라 하였다. 만일 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간다면 4년 반간 10만의 생명과 수백억의 재산을 희생한 중일전쟁은 수포로 돌아가고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제국은 최후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제3차 고노에 내각의 퇴진 후 도조(東條)내각이 들어서 노무라(野村) 대사 외에 구르스(來栖)대사를 더 보내어 교섭을 계속 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끝까지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영국은 미국을 성원하여 위협적 언사를 놓하여 제국의 굴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국은 사활의 필두에 있어 퇴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11월 26일의 헐 장관의 공식서면의 회답으로 제국정부는 12월 8일 오전 2시 노무라, 구르스 양대사를 시켜 5개조의 최후통첩을 보내고 오전 3시를 기하여 미영양국에 전투행위를 개시하였다.

3. 전쟁의 전도(前途)

태평양전쟁은 장차 어떻게 진전될까. 이미 개저 1개월도 못되어 홍콩, 마닐라, 괌, 웨크, 괄섬을 점령하고 말레이의 북반(北半)을 점령하고 보르네오 일부를 점령한 금일 싱가포르의 함락,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의 점령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왜 그러나 하면 현대전에 있어서 적의 상륙을 방해함에는 비행기와 군함이 많아야 하는데 영미의 동아의 주력함은 다 격침파되었고 그 외 보조함은 그리 큰 성능을 가지지 못했으며 비행기는 일천 대 가량이 격추파된 모양이니 금후 자바, 수마트라 상륙에는 큰 곤란이 없을 것이며, 상륙한 육군부대가 영, 호(濠), 인(印)의 연합군이나 미, 필리핀(比)의 연합군을 격파하기 용이한 것은 방금 진전 중의 말레이, 필리핀 제도의 전투를 보면 확실할 것이다. 단 말레이 반도니 보르네오니, 자바니 수마트라니 지도상으로는 적계 보이나 모두 본주 내지 그 배의 도서이니

1~2일에 모두 점령키는 어렵겠지만 그 전토의 점령은 시간문제다. 물론 태평양상에는 미영의 기지될 만한 도서가 300이나 있다하니 잠수함, 비행기의 활동이 크고 따라 그 전 기지를 전부 점령하는 것은 단 시일에 될 것은 아니겠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제도, 괌, 웨이크, 미드웨이,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미얀마(緬甸)까지만 점령하면 기타는 설혹 점령치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 대동아전과 공영권

이상과 같이 동아공영권 내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로서 대략 완수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미영이 이 영토를 상실하고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지 않을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런가 하면 미영은 그래도 세계의 최대국의 하나로서 본국에는 강대한 해군 및 육군공군이 있고 금후 장기적으로 전쟁할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자원이 풍부한 것을 믿고 대진 함안을 촉진중이며 비행기도 상당한 생산계획을 진행중이므로 이것의 완성을 기다려 대거 진공해 오리라 생각하는 때문이다. 미영 양국은 태평양 상 제도서의 기지에서 성의 잠수함 비행기를 날려 남양해상의 제국함선을 저격하여 통상로를 파괴할 것이다. 또는 소련을 협위(脅威) 또는 유인하여 연해주 방면에 공군기지를 획득하여 제국본토를 공격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련은 독소전(獨蘇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금일 제국에 감히 도전해 오지 않을 것이요, 알래스카의 알류산군도 상공을 비상해 오는 미의 항공대는 원거리라 큰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지며 태평양 상의 각 기지에서 오는 저격은 큰 전투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미국이 2년 내지 3년 후 대군비를 완성하여 대거 제국 근해에 진공해 오는 것인데 2~3년 내에 제국은 네덜란드령 인도의 석유와 주석과 고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쌀과 철, 미얀마의 면화, 필리핀 제도의 마, 사탕 등으로 국내의 식량문제, 생산문제를 해결하고 군비를 확장할 대로 확장할 지니 미국이 아무런 군비를 가지고 2~3년 후 진공해 와도 겁날 바는 하나도 없다.

5. 대동아전쟁과 구주전쟁

제국이 12월 8일 미영에 선전을 포고하자 독일, 이탈리아는 15일에 각 각 미국에 선전을 포고하여 세계가 실로 대전쟁에 석권되었다. 독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한 것은 실로 일독이 삼국동맹의 조약에 기한 것으로 새로 이 조약 외에 단독강화를 안하기로 동맹했으므로 일독이의 구축관계는 한층 견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설사 태평양전쟁이 남양제도에 점령으로 일단락이 된다 하더라도 독이가 미영소와 전쟁하는 동안은 강화조약은 있을 수 없고 전쟁상태는 의연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구주전쟁은 동아전쟁보다 더 장기화 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하면 독소전이 동계에 들어가 중지상태에 있은즉 춘계를 당하여 결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고 지중해에 영국군이 아직 완강히 버티고 있으니 이탈리아의 해군이 있더라도 독일이 근동, 북해, 수에즈작전을 함에 상당한 고난이 없을 수 없다. 히틀러총통이 과연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규지할 바 못되니 금후 구주대전쟁이 어떻게 진전될 지 모르나 동계 중동부전선(中東部戰線)에서 전투행위가 곤란한 기회를 타서 수에즈나

북하방면이나 근동 또는 코카사스로 진격을 하지 않을까. 이리하여 동서에서 적을 받는 영국은 전과 달리 미국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는 금일, 그 세력이 매우 열등해졌다 할 수 있으며 저항력도 열하였다 할 수 있으며 저항력도 열하였다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대동아전이 정치전쟁에 준 영향도 막대하니 이것은 구주전쟁을 속히 종결에 인도(導)케 하고 세계신질서를 건설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로 태평양전쟁은 동아공영권의 확립에 있는 동시에 세계신질서 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연(演)하는 것이다.

〈출전 : 咸尙勳 「時局解説-大東亞戰爭」, 『半島の光』 第51號, 1942년 2월, 12~13쪽〉

3) 동아공영권과 민족정책

1. 대동아전쟁의 목표

작년 12월 8일 대미영선전(對米英宣戰)의 대조(大詔)가 환발(渙發)된 이래, 황군(皇軍)은 육지로, 바다로, 공중으로 대전과를 거두며 서남태평양일대는 황군의 위압하에 있다. 즉 개전벽두 해군항공대는 하와이(布哇) 진주(眞珠) 내의 미국 주력함대를 격멸하고 수일 내에 말레이 앞바다에서 영(英)주력함대를 궤멸시킨 후, 웨이크, 괌, 홍콩(香港)에 상륙한 육군부대는 20일 내에 이것을 점령하고, 필리핀(比律賓), 말레이반도(馬來半島)를 22일 이내에 석권한 후 즉 25일에 영국의 동아근거지 싱가포르(新嘉坡)를 점령하여 마니라(馬尼刺), 홍콩,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영미의 대동맥을 단절하였다. 그간 보르네오에 상륙한 부대는 군사상 요충을 착착 점령중이며 호주(濠洲)의 전면 뉴기니아, 수마트라, 자바, 세레베스, 모룩카, 반다제도도 간단없이 폭격하여 영(英)미(米)란(蘭: 네덜란드)호(濠: 오스트레일리아)의 함선을 대동아 해상에서 절멸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동(東)은 동경 180도(일부 변경선)로부터 서(西)는 동경 79도의 지역까지 제국의 기치 앞에 들어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이 지역 안에는 실로 만주(滿洲), 중국(支那), 미얀마(緬甸), 말레이(馬來), 네덜란드령 인도(蘭印), 호주, 필리핀, 웨이크, 괌이 포함되는데 이같은 광대한 면적은 제국건국사상 일찍이 없던 일은 동시에 일류역사 상에도 드문 판도이다. 그러면 제국은 이같은 광대한 지역을 점거하여 소위(所謂) 영토로 삼으려는가, 혹은 자치령으로 삼으려는가, 국민의 관심은 물론, 점령지 내 주민들도 궁금히 여기는 바이다.

2. 대동아건설 선언

이에 대하여는 제2차 고노에 내각(近衛內閣) 때에 동아공영권의 확립이라 표어으로써 이 권(圈) 내의 제 국가, 민족의 경제적 공존공영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발명(發明)은 금춘(今春) 재개의회 벽두, 도조(東條)수상의 시정연설로써 나타났다. 도조수상은 금차의 태평양전쟁의 지도요령은 1. 광영을 굴복시킬 때까지는 어디까지든지 전쟁을 계속할 것, 2.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당하여 대동아방위에 절대 필요한 지역은 제국자신 이것을 파악, 조치할 것, 3. 이 의미에서 홍콩, 말레이 반도는 동아 네덜란드의 기지였던 점에 감(鑑)하여 그 화란(禍亂)을 삼제(芟除)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땅을 대동아방위의 거점으로 할 것, 4. 필리핀 제도(比島)에 대하여는 국도(國島)의 민중이 우리의 진의(眞意)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독립을 흥할 것, 5. 미얀마(緬甸)도 필리핀 제도와 동의를 취급을 할 것, 6. 네덜란드령 인도(蘭印), 호주도 그 주민이 협력하면 충분한 이해로써 원조함. 7. 중경정권은 철저적으로 파쇄함. 8. 독이(獨伊)와의 제휴협력을 더욱 증강하여 세계신질서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 9. 국내시정은 먼저 작전제일주의의 방침으로써 전쟁수행력의 강화증진을 선결로 하고 군관민 일치하여 충력을 집중할 것, 10. 태평양전쟁수행과 동시에 일본국민의 활동범위는 매우 확대되고 따라 그 임무는 더욱 중대화하여, 국민의 소질향상과 인구증가를 절대필요로 할 것 등의 제점을 역설명시하였다. 즉 홍콩, 말레이 등 군사적 거점과 제국의 직할 식민지로 하고 필리핀 제도, 미얀마는 동민이 제국과 협력한다면 장차 독립을 허여(許與)하고 네덜란드령 인도(蘭印), 호주는 주민이 제국과 협력하면 그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원조하겠다 하였다. 이와 같이 보아오면 만주국은 제국의 맹방(盟邦)으로서 현재와 같은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고노에 성명의 삼원칙에 의하여 또한 제국과 제휴하여 신동아건설에 매진하며, 태국은 제국과 공수동맹국이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는 장차 베트남인의 자각과 아울러 필리핀 제도, 미얀마의 수준에 달할지오, 네덜란드령 인도, 호주는 적당한 대우를 받을 터이니 대동아제국 및 제민족이야말로 제국을 맹주로 일대 블록이 성립되고 동아의 공존공영권이 성립될 것이다.

3. 대동아공영권의 이상

이상과 같이 태평양전쟁의 결과 동경 180도부터 동경90도에 이르는 지역이 제국의 지도국 내에 들면 각각 민족적 문화정도, 군사적 관계를 참작하여 독립, 자치 또는 직할민지로 되겠거니와 이 제국을 맹주로한 대동아제국가가 민족은 여하히 하여 공존공영의 질을 거(擧)할 수 있을까. 이 제국가가 군사적으로 한 공동방위체가 도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각각 소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절대의 이익을 형수(享受)할 것이다. 이 공영권 내에는 인구 7억(인도를 넣으면 10억)이 있으며 자원으로서만주에 철, 쌀, 태국(泰)에 쌀, 고무, 주석(錫), 미얀마에 쌀, 석유, 목재, 텅스텐, 주석, 말레이에 고무, 주석, 필리핀 제도에 사탕, 마(麻), 코브라, 네덜란드령 인도에 석유, 고무, 주석, 브레모에 석유, 호주에 양모, 소맥, 납(鉛), 아연, 동(銅), 은(銀) 등 없는 것이 없다. 이것들은 일본의 공업생산물과 바꾸고 그 원료로 한다면 이 공영권이야말로 미국을 주체로 한 남아메리카, 독이를 중심한 유럽 및 아프리카(亞弗利加)의 블록보다 못하지 않게 부유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로써 동양민족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향상하면 정치적 자각은 자연 생길것이오, 따라서 동양 제민족의 현능(賢能), 친선은 증진 될 것이다.

(출전 : 咸尙勳 「東亞共榮圈과 民族政策」, 『新時代』 第2圈 3號, 1942년 3월, 28~31쪽)

4) 독일의 항복과 태평양전국

1. 태평양전국의 신단계

히틀러 총통의 전사를 계기로 독일은 반추축국(反樞軸國)에 무조건 항복을 제의하였다. 실로 5년 8개월이란 장기전을 싸우다가 실진탄진(失盡彈盡)하여 적의 군문(軍門)에 내려 성하(城下)의 맹서를 한 독일의 심정을 생각하면 동정에 불감한다. 양진영의 최고병력은 미국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반추축 측 적군(赤軍) 1,000만, 미군(米軍) 400만, 영군(英軍) 100만, 프랑스군(佛軍) 지상군(地上軍) 50만 동 지하군(同地下軍) 60만 합 1,600만이고, 독일 측은 독일군 800만, 불가리아군(勃軍) 40만, 루마니아군(羅馬尼軍) 20만, 필란드군(芬蘭軍) 20만, 체코군 4만, 이탈리아군 130만, 잡군(雜軍)(주로 소련 및 폴란드군) ……(1줄 판독불가)…… 이었던 것이 인식되며 독군 서부전선사령관 룬드슈테트 원수의 패전의 이유로서 원료의 부족을 든 것은 현대전이 얼마나 물량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구주전(歐州戰)은 여하간 독일의 항복으로써 일단락을 지었거니와 태평양전쟁 즉 세계전쟁의 일환으로서의 일본 대 미영장(米英蔣)전쟁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은 구주전쟁의 종료로써 신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즉 태평양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에 원정(遠征)갔던 미영의 육해군은 대부분을 태평양전역에 회항시켜 대일전쟁에 향(向)케 할지니 제국이 받을 압박은 가중할지며 전쟁은 한층 가열 처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소련과 미영관계

이곳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소련(蘇聯)과 미영관계이다. 만일 독일을 타도한 소련과 미영이 호상 각축(互相角逐)하여 구주대륙에서 일대충돌이 발생한다면 세계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모른다. 현재 전후 국제안전보장기구를 심의하는 샌프란시스코회의(桑港會議)서도 미영 대 소련의 대립은 현저하다. 일파란(日波蘭)문제, 일중남미제국(日中南米諸國)의 지역적 안전보장기구의 용인문제, 일본 식민지해방문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영국 하원에서의 모 보수당의원과 로 외상대리와와의 질문답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로는 분명히 소(蘇)의 영군포로문제, 특파기자취급문제, 구폴란드정권영수체포문제(舊波蘭政權領袖逮捕問題)에 불만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회담에 소련방 요구인 우크라이나 및 백로시아(白露西亞) 양공화국의 초청과 5국 대표의 의장윤번제 요구를 용인한 것을 보면 전면적 결렬이 있을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그 보다는 독일이 미영에만 항복하고 소련에는 항전하겠다는 조건부 항복을 일축하고 3국에 무조건항복을 요구한 것을 보면 미영 대 소련이 근본적으로 대립하여 무력적 충돌에까지 이르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더욱 미영은 극동에 일본이란 강대한 국가와 전쟁 중이요, 소련도 금번전쟁에 천만이상의 전사상을 낸 터라 피폐한 국력을 가지고 또다시 미영과 간과(干戈)를 교(交)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소련이 전후부흥을 꾀하려면 미국의 물자를 요할 것이 절실하다. 이미 미국에 대하여는 60억 불의 차관 요구가 있고 영국에 대해서는 25억 파운드의 차관 요구가 있는 것을 보든지, 미국상업회의소 회두(會頭)가 작년 스탈린의장을 회견하였을 때 전후 소련은 미국에 의뢰할 바 많다는 것을 역설했던 점으로 보아 소련 대 미영관계는 무력적 충돌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일소관계의 장래

소련과 미영관계에 버금하여 중대한 관계는 일소관계다. 일소는 일소중립조약에 의하여 명년 4월 25일까지 중립관계에 있으나 소련은 지난 4월 14일 이 조약의 만기를 기회로 더 연장치 않을 것을 통고하고 그 이유로서 '일본은 소련이 전쟁하는 독일을 원조하고 있고, 소련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영과 전쟁하니 중립관계가 있을 수 없다.'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종래 제국과의 관계를 꺼려 테헤란회담에도 장개석과 만나지 않은 스탈린 의장이 금년 2월 크리미아회담 후는 미영소장불(米英蘇蔣佛) 5국이 샌프란시스코회의에 동석할 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이 되자고까지 하여 대일반대진영에 참가할 것을 노골적으로 명시하였다. 제국정부는 독일의 항복과 동시에 성명을 방하여 미영과는 어디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을 천명하고, 동향(東鄉)외상은 일독이군사동맹, 일독이문화협정, 일독이방공협정 등 삼국관계의 일절의 협정이 효력을 표적하였지만 에이.피 기자가 몰로토프외상에게 독소전후 일본과 전쟁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4월에 말한 것과 변화가 없다'고 다언(多言)을 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지 심장하다. 일소관계는 현 정부의 선처할 것이므로 태평양전국과는 전연 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직 미영장과의 전쟁만으로 전국을 타진하자.

4. 중대화한 현전국

태평양의 현전국만 보더라도 그리 용이한 상태는 아니다. 작년 8월 사이판실함(失陷)이래, 10월의 레이테섬 상륙, 금년 2월의 유황도(硫黃島) 점령, 3월 10일 동경(東京)을 위시한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등 4대 도시의 무차별폭격, 4월 1일의 오키나와(沖繩島) 상륙, 이 어찌 전국이 긴박 중대화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 간 대만해협해전(臺灣沖海戰) 필리핀 제도 해전(比島沖海戰), 오키나와 섬 주변에서의 항공격멸전 등 전과는 혁혁하다. 그러나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4대 도시는 불과 수차의 폭격으로 3백 수십만의 이재자(罹災者)를 냈으며 미군은 도쿄에서 1천2백 킬로미터인 유황도, 규슈(九州)에서 6백4십 킬로미터의 오키나와에 있지 않은가. 사이판에서나, 유황도에서나, 오키나와에서나 수비부대의 보급은 항공전 이외에 없었다. 오키나와 본도에서는 500여척의 함선을 격파침하고 상륙한 8개사 중 2개사 이상을 격퇴하였지만 남중화 3비행장에는 이미 미국항공기 200여대가 진주해 있고, 좌강도(佐江島)에는 중, 서 양비행장을 복구하였으며 게라마열도(慶良間列島)의 수상기지는 육상 기지로 화(化)하라 초조(焦燥)하고 있다. 그리고도 오키나와 주변에는 약 200척의 함선이 유과(遊戈)하고 있고 수리방패(首里邦霸)의 주진지에는 물량을 배경으로 한 미군이 침입하여 전선은 견아상태(犬牙狀態)에 빠졌다하니 오키나와 전국도 반드시 낙관할 수는 없다. 만일 오키나와가 점령된다 가정하자 미국은 이것을 공군근거지로 하고 기타큐슈, 조선해협 남조선지방을 행동권내로 하는 전폭비행기가 간단없이 출발하여 대륙과 일본과의 수송로를 차단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5. 구주원정군의 회항병력

구주(歐洲)로부터 태평양전역에 회항할 수 있는 병력은 구주의 치안관계 선박(船腹)관계를 안중에

놓고 계산해야 한다. 미 전시 운수부장 솜마빌은 구주파견 미군 350만중 40만은 주둔케 하고 나머지 305만 명만 본국에 회군케 한다는데 그리하러면 1개월 25만 내지 50만의 비율로 1년을 요하겠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일부분이 직접 지중해 인도양으로 회항한대도 현저한 세력이 되려면 2~3개월을 요할 것이다. 즉 항공기는 구주에 약 2만대가 있다는 바 그 반분인 5천대가 온다 해도 공중수송을 할 터이니 까 쉽게 오겠지만 그것에 필요한 가솔린 무기 탄약과 병기 등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미대통령 트루먼은 대일전쟁에 700만을 동원하고 근근 무장병력 200만을 새로 태평양 전역에 보낼 것을 호언하였지만 100만을 상륙시키려해도 후방에 300만이 있어야 하므로 약 4천만 톤의 선박이 필요하니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해군은 이미 미국 것은 거의 전력을 태평양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며 영국함대도 전함 킹조지 5세와 공모(空母) 일러스트레이트 급 5척이 회항해 와 있으므로 금후 회항할 수 있는 것은 제식공모 10척, 특설공모 5~6척, 전함 15척, 대순(大巡) 6~7척 중 대부분과 불이(佛伊)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급 독일의 잠수함 300척 중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태평양전역에 집결되어 있는 미국 해군과 합류한다면 그 간 손모(損耗)된 것을 간주해도 공모 100척, 전함 40척, 순양함 300척, 구축함 700척, 잠수함 400척, 기타 상륙용 주정(舟艇) 1만척 합계 1만 수천척이어서 미영이 북불(北佛)상륙에서 사용한 함정 수에 가깝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육해 삼세력의 태평양전역 집결은 심상(尋常)한 일이 아니다.

6. 차기 상륙작전

오키나와가 미국의 호언하는 바와 같이 탈취된다 가정하고 유럽에서 원정군이 회항했다 가정하면 차기작전은 어느 방향으로 할까. 미국의 작전에는 종래 두 가지 대립된 이론이 있어 하나는 맥아더를 지도자로 하는 중국상륙론이오, 다른 하나는 니미츠를 선두로 하는 본토상륙론이다. 중국상륙론은 남중국(南支)에 대군을 상륙시켜 일본육군을 대륙에서 격파하지 않으면 일본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대륙에는 제국육군이 적어도 수백만은 있을지오 그 배후에는 강대한 관동군이 있다. 이곳에서 대결전을 감행하려면 구주 상륙에 파견한 병력만큼을 필요로 할지 그 수송문제가 굉장하다. 또 설사 1년 2년을 걸러 그것이 가능하다치고라도 제국본토에 있는 방계군이 있는 이상 항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방금 미얀마(緬甸) 랑군(蘭貢)에 침입한 미영장연합군이 태국(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로 동진하여 말레이반도(馬來半島)를 차단하려는 작전에 호응키 위하여 프랑스령 인도 혹은 남지로 약간 상륙은 할지 모르나 수백 사단이란 대부대는 상륙치 않을지며 따라 제국본토를 향하여 시급히 결전을 요구할 니미츠의 행상으로서의 본토상륙작전이 감행될 것 같다.

그러면 본토상륙작전은 어디로부터 감행할까. 본토로 상륙함에는 1~20만으로는 방어군을 당할 수 없으므로 최소 근 100만은 상륙케 하려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장시일제공 제해권을 장악해야 할지니 필리핀 제도는 구주까지 약 2천 킬로미터 항공 기타로서는 원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유황도 오키나와에는 비행장이 전자는 수 개소 후자는 십수 개소나 각각 충분치 못하다. 미영군이 북불상륙이 가능한 것은 영국이란 대기지에 1만2천대의 항공기가 발착할 만한 비행장군이 있었고 2천척의 함정을 정박할 항만이 있었으며 3백만의 병원을 주둔시킬 병영과 그 인원에 필요한 군수자재를 집적할 설비장소가 있었

다. 그러므로 필리핀 제도를 기지로 삼더라도 오키나와 및 그 부근일대의 대소전진기지를 다수 획득치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차기작전은 제주도 혹은 오키나와 부근의 엄미대도(奄美大島) 종자도(種子島) 등을 공격하여 이것을 육상기지화한 후라야 감행할 것이다. 물론 사츠마열도(薩摩列島)라든지 특히 제주도는 오키나와에서도 800킬로미터나 되고 기타큐슈 남조선서는 지호지간(指呼之間)이므로 아무리 58 기동부대라 하더라도 손모가 많을지오 완전히 탈취할가 의문이지만 대륙과 일본을 차단하려는 기도로 보아 본토상륙작전 상으로보나 이 두 가지 작전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7. 본토상륙은 가능?

가정에 가정이지만 사츠마열도 제주도가 미영의 기지가 된다면 과연 조선이나 구주에 상륙이 가능할까. 조선상 ……(1줄 판독불가)…… 그 목적은 달할지니 구태여 조선상륙은 택하지 않을 것 같다. 더욱 조선에는 배후에 관동군이 있고 북, 중지에서 수백만이라도 집결할 수 있을지 이것과 대항할 그만큼 실력을 가졌다면 본토를 상륙할 것이다. 그러면 구주로부터의 상륙은 가능할까 제주도 오키나와 엄미도 종자도 등을 탈취한다면 비행 기타는 수십 곳이 될 것이다.

단시간이나마 제공권은 장악할 수 있을지며 일부의 상륙도 가능할지 모른다. 요는 백만이란 대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으니 만일 이것을 수변에서 다 격퇴치 못하고 대부대의 상륙을 허락한다면 본토에서 일대야전을 상상할지며 만일 그 주력을 수변에서 격파한다면 아무리 물량을 과장하는 미영이라 할지라도 다시 상륙작전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념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근대전은 도처에 결전의 연속이나 본토상륙전이야말로 일대결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상결전이나 육상야전이나 결국 항공기의 보급이 전국결정의 관건(鍵)이 되나니 비록 미영에 항공기생산량이 연8만대라 하더라도 기타의 원거리인 약점이 있고 제국에는 기타의 근거리인 강점이 있으니 제국에 반드시 약점이 ……(1줄 판독불가)…… 공기에 부 한 병기의 증산이 승패의 건이 된다 할 것이다.

(5월 18일 기)

〈출전 : 咸尙勳 「獨逸의 降伏과 太平洋戰局」, 『朝光』 第11卷 3號, 1945년 5·6월, 4~9쪽〉

Ⅲ.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

지지·선전

1. 고향경(高鳳京)

1) 최저생활에 대한 생각(最低生活隨感)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죽과 같이 진흙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진흙을 딛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가엽고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다. 전부가 죽 땅인데도 행여나 마르고 단단한 곳이 있으면 골라 디터 볼까하고 한발 내어놓고 망설이고 두발 내어놓고 궁리해보고 어름어름하는 동안 발은 자꾸 빠지고 몸의 중심은 점점 잃어버려 보기 좋게 진흙에 주저앉는 일이 그다지 드물지 않다. 그것을 우습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진흙 속에서도 마른땅을 고르려는 것이 인정이므로 고르려고 애쓰다가 넘어져서 더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이 세상을 고향(苦海)라고 한다면 고향 가운데서 낙원을 골라 디디려고 헤매다가 남유달리 쓴 맛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진흙 속을 걸을 때에는 만족한 맘으로 걸어야 하고 고향을 건너갈 때에는 운명으로 알고 단념하면서 지나가야 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진흙 속을 피하고 싶은 것이나 고향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인간의 정당한 요구이다. 이 정당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사람에게 있는 까닭이다. 정당한 요구에 맞게 하려면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한 방법을 취하려면 순간순간에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과 같이 급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고 지루할 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런고로 정당한 방법을 취할 줄 몰라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가는 자도 있고 정당한 방법을 취하기에는 너무 장구한 시간과 노력이 들므로 귀찮아서 나중에는 어디로 갔던지, 또 남은 무슨 지경에 가던지 우선, 눈앞에 괴로움이나 피하고 낙(樂)이나 취하자는 심사로 나가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아니하여 그 값으로 더 큰 괴로움을 받는 것을 넉넉히 깨달을 것이다.

빛에 쪼들려 괴로운 사람이 그 괴로움을 면하려고 술을 잔뜩 먹고 기차선로를 베고 쓰러져서 자는 맛은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모르나 까닥하면 목숨을 떼어 바치기 쉬운 일이요, 혹시 무사히 깨어난다 하더라도 쪼들린 빛이 없어지기는 고사하고 술값조차 빛을 더 보태게 되니 괴로움은 커질 뿐이다. 맹장염 환자가 배가 아픈 채 그 아픔을 면하려고 아편을 먹고 누워 자면 순간의 괴로움은 없어질지 모르나 깨고 보니 그동안 맹장은 굼아터져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빛에 쪼들리는 자는 노력해서 빛을 갚을 것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맹장이 아프면 수술을 받고 떼어 버리는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하루살이 벌레가 아닌 이상 괴로움을 면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뿌리까지 뽑도록 애쓸 것이고 뿌리까지 뽑도록 애를 쓰노라면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큰 괴로움이 있을 것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장래 희망 속에 사는 까닭으로 앞날의 긴 괴로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당하는 당장의 큰 고생쯤은 오히려 씩씩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나, 지금 아무리 호강스럽다고 하더라도 앞날에 기막히는 일을 당할 것을 안다면 그 호강이 가시같이 쪼릴 것이다. 마치 큰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루쯤 굶어야 된다면 그 굶는 동안 다소간 배가 고프더라도 병이 떨어질 것을 낙을 삼고 기쁜 맘으로 참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일모레는 파산을 당해서 소유물을 다 청산해 버리고 빈손을 들게 될 터이니 마지막으로 저녁 한 끼 잘 먹으라고 만반 진수를 차려주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음식이 목에 메어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병 낫기 위하여 굶는 사람의 가슴보다 더 쓰린 것과 같다.

우리는 각각 지금까지의 생활이 장래를 위한 생활인가 장래를 무시한 생활인가 조용히 엄숙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방금 우리 국가는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은 아프고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큰 집을 짓기 위하여 지초들을 쪼는 고생에 비할 것이며,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파는 고생에 비할 것이다. 장래 건설을 위한 인간의 뜻있는 고생이다.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즉 장래의 최고명예를 위하여 일억 국민은 최저생활로써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이다.

최저생활자체는 그다지 화려하고 유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긴장 가운데 상당한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괴로움이란 것은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굶는 사람의 희망에 넘친 기쁨으로 넉넉히 참고도 남는다는 것보다도 더욱 뜻이 있고 기쁨이 넘친 속에서 살 수 있는 괴로움이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 속의 기쁨이다. 황국신민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자랑거리의 하나이다. 오히려 이 시국을 인식 못하고 국가에 어떤 희생을 시키고라도 풍족한 생활을 해 보자고 드는 사람이야 말로 큰 보물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워 귀찮다고 내려 던져버리고 술먹고 철도선로를 베개 삼아 단잠을 자보려고 하는 격이다. 패가망신하고 나서 죽지 못해서 최저생활이 아니라 대동아를 건설하기 위해 일억 국민이 협력하는 최저생활은 최고의 명예가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 인간의 신비스러운 만족도 또한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사이 생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최소 한도로 점점 내려갈수록 우리 국가는 최고영예에 달할 날이 일보일보 가까운 것을 생각할 때 방금 우리의 최저생활 가운데서는 순간적으로 괴로움도 깨다를 여유가 없을 만큼 희망과 기쁨에 파묻히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는 바이다.

〈출전 : 高凰京, 「最低生活隨感」, 『半島の光』 鮮文版 66號,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3년 6월, 13쪽〉

2) 어려움을 기쁨으로 아는 생활

경성자매원(京城姉妹園) 고헌경

우리가 전시를 당한지 여러 해가 됨을 따라 점점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전시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맡기가 쉽다. 마치 집안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 병이 그리 대단치 않더라도 큰일이나 난 듯이 온 집안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그 환자를 둘러싸고 근심 중에 성의를 다한다.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 동안 그 마음이 처음 같지 않고 집안에 환자가 있는 것이 예사가 되어서 근심도 성의도 부지중 조금씩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병도 눈 쓸어지듯 쓸어지고 아주 완쾌되고 만다면 거기서 더 다행한 일은 없겠지마는 그 반대로 병은 점점 위중해 가는데 간호할 식구의 마음은 점점 풀려가서 환자의 위급한 모양을 보아도 예사가 되고 급히 서둘러줄 성의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불행이 없을 것이다.

꼭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쟁이 한해 두해 지나서 햇수가 지나고 보니 비상시

가 비상시 같지 않고 처음 당할 때 보다 마음을 놓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점점 가벼워 지느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쟁은 나날이 심각하여 가고 전국이 중대하여 갈 뿐이다. 우리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옆에서 졸고 앉은 간호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맹렬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집에는 환자가 있다는 어렵듯한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 환자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상태이니까 내 생명을 내어걸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하고 있는 전쟁이야말로 보통전쟁이 아니라 중대한 전쟁이요, 중대한 전쟁 중에도 정말 중대전국에 임한 것이다. 일억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이 위급한 고비를 넘길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이때이다. 제일선도 없고 총후도 없다. 누구나 다 제일선에서 싸우는 장병이다.

우리의 가정이란 곳은 뒤에 앉아 전쟁을 돕는 곳이라고 생각하여왔으나 지금 와서는 가정 속도 직접 전쟁터이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 물건하나 더 쓰고 덜 쓰는 것, 하나하나가 전쟁 결승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큰 힘을 막는 적이 될 수도 있다. 옷 한 가지 덜 입고, 반찬 한 가지 줄이는데, 원수 하나를 더 막을 수 있으며 쳐부술 수 있는 까닭에 우리의 쓸 수 있는 물건은 생명보다 귀한 국가에 다 바치고 우리는 쓸 수 없다고 단념하였던 폐물을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이용하고 갱생시켜 극도로 절약하여 최소한도의 생활을 달게 받고 나가는 것이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데 큰 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달게 받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만 가질 수 있는 행복이다. 같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단맘으로 달게 먹는 사람은 살이 찌고 찌푸리는 얼굴로 역정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소화시키지 못하여 소화불량에 걸림으로 점점 마르고 만다. 사람이란 것은 좋은 것도 쓴 맘으로 받을 때 불행이 되고 쓴 것도 단맘으로 받을 때 큰 행복이 되는 법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괴로움과 쓰린 경험도 마음한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 전쟁 전에 평시에는 풍부한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물자부족으로 누구나 곤고(困苦) 결핍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지금부터 아홉 해 전에 지독한 장티푸스(장질부사)에 걸려 죽을 뻔 하다가가 아니라 죽었다가 깨어난 일이 있다. 그 병위에 탄 병이 덮치고 또 덮치어 꼭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는 중 사십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려 이런 환자는 백에 하나 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중태로 의사 이하 전부 버린 목숨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나 한 몸의 한 달 입원비가 우리 한 가족 한 달 생활비를 다 빼앗고 말았다. 그 외에 위중한 환자를 온 집안이 교대하여 간호하느라고 매식(買食)하는 비용이 깜짝 놀라게 들었다. 살림을 맡은 주부가 이 환자의 가장 애정에 넘치는 자모(慈母)인고로 주야로 불면불식하고 계속 간호를 함으로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보니 그 역시 또 한 큰돈이 들었다. 제일 값나가는 음식을 가려먹고도 날마다 해골같이 말라가는 것은 환자이니 엄청난 비용은 들대로 들고도 한심하고 기막히는 것은 이 노릇이라고 한탄 안할 사람이 없을 만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플 적에 당한 우리 가족의 괴로움은 이 경제적 소비뿐만 아니었다. 11년이나 집을 떠나가 있다가 돌아온 딸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하는 마음 졸인 근심과 슬픔에 싸인 낙심이었다. 그러나 장티푸스라는 병은 의사의 치료보다도 간호를 잘하여만 되고 간호를 잘하기만 하면 꼭 산다는 그 말이

무엇보다 일류의 희망이었다. 캄캄한 밤중에 천인절벽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같이 까마득하고 답답하면서도 간호만 잘하면 산다는 희망의 빛을 바라고 낙심치 않고 간호를 단념으로 하였다.

아무도 간호공부를 한 식구가 없었으되 하늘을 찌를 듯한 지성과 사랑으로 간호를 자신있게 하였으며 경제적 큰 소비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그 때문에 받는 집안 식구의 곤란도 오히려 많이 받을 수록 이 환자의 병이 좀 더 속히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달고 감사하게 받으며 식사 때를 놓치고 잠잘 시간을 잃어버려도 환자가 그 만큼 도움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할 때 원망스런 생각보다도 오히려 기쁜 마음에 얼마나 생기있게 간호를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여러 번 죽음의 고개를 방황하며 식염주사(食鹽注射)와 산소흡입으로 위기를 당하더라도 꼭 지성으로 살리고 만다는 온 집안 식구의 불덩이 같은 신념과 모든 고생을 사랑으로 달게 받는 큰 각오로써 종시 송장 같던 내가 다시 살고야 말았다. 생각할수록 눈물겨운 과거의 추억이다.

지금 우리의 이 전쟁은 그와 같다고 본다. 국가위급 존망지추에 일억 국민이 꼭 이 전쟁은 이겨내고야 만다는 큰 신념과 각오로 불타는 애국심과 하늘을 찌르는 듯한 지성으로 이 싸우는 생활을 단념으로 한다면 승리는 꼭 이곳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짱그리는 얼굴로 밥 한 그릇 먹는 것과 단념으로 한 그릇 먹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거니와 같은 어려운 것을 웃는 낯으로 참고이기는 자에게만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망을 향하여 받는 고통은 목적없이 누리는 즐거움보다 사는 보람이 있고 생기가 있고 오히려 기쁨이 있는 법이다.

이전에 평시에 막연하게 호강스러운 생활을 할 때보다 오늘날 이 태평양전쟁을 당하여 황국신민의 한 분자로서 미약하나마 이 성전을 완수하는 데 지성을 바칠 수 있는 자리에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이 이상 영광이 없으며 승전의 희망봉을 바라보고 받는 곤란이나 결핍은 너무 과남한 명예라고 생각할 때 더욱 사는 보람이 있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출전 : 高鳳京,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는 생활」, 『半島之光』 鮮文版 80號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4년 9월, 14~15쪽〉

2. 김성수(金性洙)

1) 새 결의로 총결기

고이소(小磯) 대장을 수반으로 인재를 널리 구하여 농민이 기대하는 거국일치의 신내각 진용이 결정된 것은 실로 국가를 위하여 경행한 일이다. 신내각은 강력내각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이에 전폭적인 신뢰를 바칠 수 있다. 덕망이 높고 정치적 수완이 큰 고이소 총리를 비롯하여 총리대신의 경력에 맞는 요나미(米内)대장의 해군대신이며 그 밖에 각 성(省) 대신과 국무대신 등의 새진용은 1억국민을 이끌고 전쟁완수에 매진하기에 충분한 강력적인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는

이로써 완비된 것이므로 일역은 이 기회에 비상한 결의로 총궐기해야 할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현 총독이 총리대신이 된 만큼 조선통치의 전도에 배전의 광명이 미칠 것을 확신한다. 조선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고이소 총리의 지도에 따라 금후 반도 2천 6백만은 더 한층 지성봉공해야 할 것이다.

〈출전 : 金性洙 「새 決意로 總興起」, 『매일신보』, 1944년 7월 24일〉

3. 민규식(閔奎植)

1) 물심양면으로 국력 증강에 협력

동척회장 민규식

태평양전쟁하 제2회의 신춘을 맞이함에 당하여 삼가 성령의 무궁을 봉□하고 국운의 융창을 경축함과 함께 동아시아의 천지와 세계 7해의 일야□□를 거둬하고 있는 황군장병의 용□를 감사하며 무운장구를 기념한다.

황공하옵게도 대어능위하 황군의 분투용전으로 공육해(空陸海)에 혁혁한 전과는 익익 양양되고 미국 영국 동아시아의 □□은 모조리 격멸하여 남방 여러 지역의 군수자원을 위시하여 광대한 영역은 황군의 손에 속하였다. 이제 황군은 동반구의 대반 2만 수 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와 엄연한 방비와 새로운 대동아건설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미 제국의 필승불패의 형세는 수립되었음은 실로 □□에 불감하는 바다. 무릇 태평양전쟁의 발단은 미영이 동아시아의 평화수립이라는 일본의 역사적 지리적 사명을 무시하고 일본제압 세계제패의 야욕을 가지고 □□과 무력으로써 일본을 굴복시키며 그 생존조차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동아정책은 홀로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각 국가의 공존공영을 기념하옵시는 대어심을 체(體)한 평화정책이고 메이지유신이라 취하여온 동야 제 민족과의 제휴는 이 조국의 이상을 세계에 광산(光散)시켜가는 대정신에 의한 것이다. 이제 대동아의 지도자 일본은 동야 10억의 민족을 이끌고 일본의 흥망에 이바지하여 □□□□년의 □□과 사악에 대하여 일대 □□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영이다. 미영은 어떠한 각도로 보든지 세계 제1류의 강대국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이 두 강국을 일속으로 상대로 삼아 싸우고 있는 일본이야말로 더욱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생산력을 과시하고 영국은 세계 비교할 수 없는 □□성을 가졌다. 그것은 서로 각각 상당한 근거도 있고 □□도 있다. 이들을 적으로 싸우고 있음으로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자각치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미영의 군수공업에도 상당한 곤란이 있다. 그것은 고무, 알미늄 같은 것은 종래 전혀 동양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점령지에 들어갔으므로 미국은 금후 남미와 아프리카 방면에 이를 탐구치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저강

품이 없으면 신자원 획득을 위하여 고민에 빠짐은 필지이다. 이에 적은 일본이 동방의 건설에 성공하면 큰일이라고 하여 □□의 □북의 □□에서 물질 □력을 받고 적극적인 전쟁지휘방침에 □하기에 이르러 호주, 중국 대란에 반□□지의 강화에 대응하여 집요하게도 대일 반공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 전쟁은 점차 장기전의 단계에 들어가 치열한 소모전의 양상을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대시국에 대하여 우리 조선은 일본에 □□해서 물심양면에 걸쳐 국력의 부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생산 확충 증산은 물론이며 지하자원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음은 전혀 든든한 일이다. 반도 2천4백만 동포는 □□□하는 병참기지 □□에 생을 □한 □□을 일층 성전 완수에 온 혼을 다 바쳐 □□을 소집해서 정신□□□를 더욱 굳게 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장기전이며 소모전인 이 결전에 □하는 길은 황군의 용무와 상의하여 생산력 증강 외에 없다. □□□력의 발휘와 전력 증강이야말로 개전 제2년을 맞이하는 국민의 책무이다. 전장에는 □□의 용사가 일본의 지체도 없이 밤낮으로 처참가열한 전□을 교류하고 있다. 충후국민도 각자 전사인 자각을 가지고 □□충후일체가 되어 의연 필승의 결의로써 멸사봉공의 지성을 다하여 금년이야말로 □□□□을 완전히 □□하고 도의세계의 확립, 대동아건설 필성을 기하여 용왕맥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전 : 閔奎植, 「物心兩面으로 國力增強에 協力」, 『매일신보』, 1943년 1월 1일〉

4. 방응모(方應謨)

1) 타도 동양의 원구자(怨仇者)

나는 그동안 마침 시골 농촌에 갔다가 이번 태평양전이 일어난 것을 3일 늦게야 알게 되어 겨우 소감으로 생각했다. 이미 선전포고가 내렸고 그 결전에 있어 그들이 항상 자랑하던 미국태평양함대와 영국극동함대가 황군의 기습작전(奇襲作戰) 일격 아래에 박멸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 순간 나는 실로 한없이 감격하는 동시에 통쾌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 새삼스레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는 바로 동양의 원구자(怨仇者)요 동양 전체의 죄인이다. 한 민족을 멸망케 하고 한 국가를 쇠퇴케 하는 아편을 밀수입한 것도 영인(英人)이요 이것을 금지한다고 군함을 끌고 와서 청국을 위협하고 전쟁까지 일으킨 것도 영국이었다.

이 유명한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 즉 당시의 청나라는 소위 남경조약(南京條約)에 굴욕적 조인을 당하여 상해(上海), 광둥(廣東) 외에 3개 항을 개방하게 되고 홍콩(香港)도 그때에 할양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불탈불염주의(不奪不讓主義)로 전 동아에 자기들의 이권 상권 모든 야욕을 마음대로 확대시키어 마침내는 전동아의 대부분을 거의 식민지화시키고 말았다.

이보다 좀 뒤떨어져 미국이 또한 동아의 침략자로 등장했다. 미국은 서양에 대해서는 먼로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아에 대해서만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한다는 미명아래 문호개방 기회균등주의를 고

집하여 광대한 상품시장을 획득 보존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동양을 침략하고 유린하고 또 임의로 착취하여 동양인을 멸시천대해 왔다.

그들의 소위 박애주의, 그들의 소위 인도주의는 오직 가면에 불과한 것이어 침략을 위한 위선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리하여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간교하게 동양을 침략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양인의 원한은 가위 충천(衝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 이 이상 더 은인(隱忍) 또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평양전쟁은 그들에게서 동양을 이탈하여 공영권을 건설하고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아오던 원한의 폭발이라고도 할 것이다.

맹자(孟子) 말씀에 삼군지수(三軍之帥)는 불가탈(不可奪)⁸⁵⁾이어나와 필부지지(匹夫之志)는 불가탈(不可奪)이라 하였으니 이 원한의 폭발은 당연한 것이다.

또 공자는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했고 천필주지(天必誅之)라고도 했습니다. 미영(米英)은 죄를 하늘에 얻었기 때문에 하늘이 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전쟁에 있어 황군이 가는 곳에 어디에나 대적(對敵)이 있으리요마는 하늘이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인사(人事)를 다한 후에 천명을 기다린다는 철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 생각하면 영국은 300년 이래 침략을 일삼던 나라이고 미국은 광대한 영토에 풍부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는 자각과 결심을 새로이 하여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굳은 의지를 깨닫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필승을 위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조건을 참고삼아 말씀하겠다.

첫째, 유언비어에 미혹(迷惑)치 말자. 군관당국을 절대로 신뢰하여 설혹 불의의 변이 있다할지라도 침착하게 당국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관념을 깊게 하여 정신적 분발을 강조하는 동시에 생산확충에 일심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자절약이다. 물자가 장기전에 중요한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톨의 쌀(米), 한 오라기의 실이라도 우리 생명과 같이 아낄 것이며 생활은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최저한도로 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자기표준을 떠나서 공익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저축의 강화이다. 빈자에 일등(一燈)이란 말도 있거니와 국민 각 개인의 일분의 저금은 전국가의 힘, 거액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활보다도 저축우선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믿는다.

이상 필수조건 몇 가지를 말했지만 특히 반도 민중으로서 과거의 전쟁에 체험이 없으니만큼 이번 중일전쟁 등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의 시련체득 각오 모든 결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반도 민중은 이때에 심혈총력을 경주, 물력과 심혈을 총경주하여 국책에 협력하자는 것이다.

〈출전 : 方應謨 「打倒 東洋의 怨仇者」, 『朝光』, 第8卷 第2號, 1942년 2월, 115~116쪽〉

85) '가탈(可奪)'의 오기.

5. 방태영(方台榮)

1) 대동아전과 우리의 결의 - 선전일(宣戰日)의 교훈

요사이 우리가 태평양전쟁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기쁘는가?

환천(歡天)은 지(地)라 하는 말은 아마 이러한 때에 쓰는 형용사일 것 같다. 대개 사람은 교육과 수양을 따라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누르고 참을 수가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혹은 민족적으로 멸시와 차별을 당한 때의 감정이 나는 것은 도저히 참고 견디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아시아 민족들은 근백여년 동안을 두고 영미인(英米人)들에게 참사람으로는 결코 참지 못할 멸시의 차별을 당해서 오다가 12월 8일 미명에 우리 황군의 손으로 이 영미인들에게 설욕하기를 시작했다.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 일인가? 이 기쁨은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민족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영인의 마수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낄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태평양전쟁이 영미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생활에는 물질문명뿐 아니라 오직 정신문명의 그 근간이 되고 동양도덕의 모체가 된 국가에 충(忠)과 부모에 효(孝)라 하는 인륜의 큰 길이 있는 것을 크게 교훈 줄 것 같이 생각된다. 12월 8일 미명 전까지의 세계정세를 바라보면 위선자 아메리카는 동해를 차지하고 해적 영국은 남양을 수중에 넣어가지고, 다시 서방에는 장개석(張介石)이를 농락하여 우리 형제와 간은 동양 사람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기실은 이 영미의 술책 중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 아시아민족에서 적악(積惡)의 짓을 너무나 많이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알기에도 저의 가축 이하로 취급한 실례의 하나로다.

영국이 그 무서운 아편전쟁(阿片戰爭) 이후에 중국의 생명선 중에는 가장 중요지점을 뺏어가지고 국제도시 상해(上海) 중앙공원 때문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을 금한다’ 하는 간판을 붙이지 않았었는가?

세상에 아무리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해적 놈이기로 어찌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곳에다가 이러한 간판을 예사로 부칠 것인가?

저의 말과 개는 그 공원에 출입을 시키면서 중국인 출입을 금하니 저의 가축이하로 생각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이 우리 동양인 전체가 당하는 욕이고 결코 중국인만 당하는 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참 가증하고 괴씸한 해적이다. 이 모습을 견디고 참다가 제국의 엄연히 설분한 정의의 맴을 들고 일어선 것이 곧 태평양전쟁이다. 개전벽두(開戰劈頭)에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우리 황군에게 영미양군은 주력함대와 공군과 그 기지가 불과 23일 사이에 재기치 못할 만큼 거의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 세계에 무진장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재물과 보패가 다 미영인만 위하여 있는 것 같이 저이들의 수중에만 넣어가지고 우리는 돈을 주고 좀 팔라하여도 제국에 대해서는 경제봉쇄라는 간판을 내걸고 팔지를 아니하는 것도 다 영미인들의 적악찌거기의 일단이다.

이 막대한 전과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기습작전의 성공이라고 하지마는 나는 말하기를 하늘이 무심치 않으니까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의 꼭 그 반대로 적선지가(積惡之家)에 필유멸망(必有滅亡)하는 한 천벌이라고 말하고 싶다. 근 백년 가슴 속에 묵치고 있던 원한이 일시에 풀

리고 곧 눈물이 나도록 기쁘다. 우리는 이 기쁨을 영원히 확보해서 자자손손에게까지 주려하면 이 대동아성전의 목적이 완수되도록 협력할 결심을 새로이 하게 할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 이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지도 모르지만 전도에 어떠한 간난신고가 있더라도 우리는 노유남녀가 다 일역일심으로 총후용사된 의무를 가져야 하겠다. 그 무엇이 불편하니 부족하니 이 아이 불만하고 불평하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12월 8일 점심에 느끼는 기쁨의 기억을 새롭게 하며 항동성서(降冬盛暑)에 제일선에서 생명을 던지고 악전고투하는 황군을 생각하면 다만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될 뿐일 줄 안다. 우리 제국의 실력을 알지 못하고 적국은 장기전을 유일한 무기로 아는 듯하나 중일전쟁 이후 금일까지 지출한 전비가 480억이나 그 대부분은 벌써 장기전을 예측하고 산업 충실에 충당되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하다는 물질은 그 어느 지방에 산같이 적치하여 있는 것도 장기전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들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이 거액의 전비는 메이지 초기부터 중일전쟁 전년도까지 세출총액 이상 막대한 거액이라 하지만 금일까지 외채라고는 한 푼도 없이 국내에서 소화된 공채가 240억 밖에는 없다.

오년이나 10년 장기전에 실망할 그러한 준비와 용의가 없는 국력이 아닌 것을 믿고 안심할 것이다. 특히 우리 조선사람은 과거 일청, 일로전쟁 때에 가졌던 구경꾼 태도를 버리고 황국신민의 일원, 다시 말하면 나도 성전전투원의 한 사람이라는 철석같은 결심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가장 자랑할 만한 광명을 믿고 안심하고 오직 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교사는 교단에서, 직공은 공장에서, 농부는 농장에서 일역일심의 총력으로 각기 직역(職域)에 봉공하여야 할 것을 새롭게 결심할 것이 우리가 행복스럽게 살아나가는 길인 줄 깊이 믿는다.

〈출전 : 方台榮 「大東亞戰과 우리의 決意; 宣戰日의 敎訓」, 『朝光』 第8卷 第2號, 1942년 2월, 108~110쪽〉

6. 배상명(裵祥明)

1) 저금은 국가 위한 것, 채권 사는 데 씁니다

상명실천여학교장(祥明實踐女學校長) 배상명

본래 저금이란 것은 자기의 일신과 또한 가족을 위하여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를 당하여 나는 더욱더 저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또한 오억 저축의 근본이 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될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저금을 합니다. 무엇보다 옷을 새로 지어 입지 않는 것을 제일주의로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저금할 여유를 얻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정은 허비가 많습니다. 이 허비를

절약하여서 생활의 범위를 좁히면 여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꼭 의복 한 가지만은 특별히 주의하며 이것에서 얻는 것으로 저금을 하고 그 외 급료에서 20퍼센트는 꼭 저축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채권을 많이 사서 두었습니다. 이것도 그 전과는 다르게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데서 얻은 저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전 : 裊祥明, 「저금은 국가 위한 것 채권 사는 데 씁니다」, 『매일신보』, 1940년 12월 12일〉

2) 온 국민이 한 가족 기쁨과 고난을 같이 하자

상명실천여학교장 배상명

애국반장을 한 3년 했습니다만 특히 서울 같은 곳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웃을 모르고 살기 쉬운데 먼저 이웃이 서로 알고 사는 것만도 여간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애국반의 탄생은 우리의 가정에 큰 힘을 돕게 되는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도 큰 조직체의 단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여러분 가정에게 협력을 받고 싶을 때는 또 조사와 배급표를 전달할 때는 도 연맹에서 부군도연맹을 지나 정에서 애국반장에게 전달되니까요. 우리가 이 모임에서 떠난다면 우리 일본에서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애국반에 속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고무신 무명타월을 배급받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좋은 애국반에 한 사람이 된 여러분은 자기 집에 넓은 빈터가 있으면 애국반을 위해서 공동 원예지를 만들어도 좋고 그 반의 방공호를 만들어 놓아도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아는 분에게 상회 때에는 이야기를 듣는 일도 좋고 원예를 잘 아는 사람 방공방독을 잘 아는 분 위생의학을 잘 아는 분 그러한 분들은 애국반을 위하여 그런 방면의 지도자가 되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애국반원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 내에 즐거움 결혼이 있으면 반원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던지 어린애가 나면 그 애를 위해서 저금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저금한 금액은 단 50전 이내도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어린애가 늘 저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황군장병들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음악가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솥에서 밥을 짓고 한 자리에서 자면서 다만 한 가지 적을 이기고 승리하려는 마음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후를 지키는 우리 가정에서도 빈부와 지위를 가리지 말고 일치단결해서 일선에서 싸우는 황군장병의 마음과 매 한가지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좋은 단체인 이 애국반을 늘 원만한 큰 가족처럼 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애국반원은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습관을 일소해버리셔야겠습니다. 흔히 여자 셋만 모여도 남의 흉을 보고 쓸 때 없는 말을 일삼는 일이 많은데 이런 악습을 따르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항상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일절 동리의 홍보기 남의 말 하는 일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지 못한 일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라에 대해서도 큰 죄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전 : 裊祥明, 「온 국민이 한 가족 기쁨과 고난을 같이 하자」, 『매일신보』, 1941년 11월 10일〉

3) 역사에 남을 여성이 되자

상명여학교장(祥明女學校長) 방촌상명(芳村祥明)⁸⁶⁾

1944년도부터 징병령이 조선에도 실시되게 된 것은 반도 민중의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아직까지 지원병에 부치던 반도인에게 이제는 뒤흔한 제국의 군인으로서 국방의 중책을 지게 된 것은 크나큰 광영이며 더구나 반도여성으로서 받는 이 감격은 영원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선 교육자인 입장에서 반도의 여성을 어떻게 교육하며 더구나 군인의 아내요 어머니인 중책을 감당하여 나갈 군국 여성을 연성하는 데 종래보다 더 한층 결의를 새로이 하며 교양과 지식을 길러 나갈 자를 다시 한 번 느끼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일본 여성들의 본을 받아 역사에 남는 군인의 어머니 유명한 군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군인의 가족의 가정훈(家庭訓)을 배워 반도에서도 그런 위대한 여성들을 배출해 나가는 데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일체가 되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군국의 여성이 되려면 육체의 건강에 힘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만 정시의 건강, 즉 일본정신에 입장과 강하고 위대한 필승불패의 신념이 강한 정신력을 함양하여야 될 것입니다.

〈출전 : 芳村祥明, 「역사에 남을 여성이 되자」, 『매일신보』, 1942년 5월 13일〉

4) 시국의 재인식

상명실천여학교장 배상명

일국사회의 건전을 보전함에 있어 부인의 힘이 크고 그 자각여하에 달렸다 함은 이에 다시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금(古今)에 있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으로 그 뒤에 가룩한 어머니와 현숙(賢淑)한 부인이 있었다 함도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지나간 옛날 삼국시대에 걸식하던 바보 온달(溫達)로 하여금 발분입노(發奮立老)하여 나라의 주석(柱石)으로서 국난을 바로잡고 국난에 돌아가게 한 평강공주(平岡公主)라든지, 제 한 몸을 나라에 바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金庾信) 장군의 아들 원술(元述)이 전쟁에 패하고 몸만 살아 돌아옴에 있어 그 아버지가 대면치 아니하고, 그 후 큰 공을 세웠으나 먼저 아버지의 명을 그르쳤으며 아버지가 만나지 않은 자식이라 하여 생전 대면치 않은 지소부인(智炤夫人), 일곱 번 살아나서 국적을 멸하겠다고 맹서(盟誓)하고 진천(溱川)싸움에서 사라진 남정성(楠正成)의 아들 정행(正行)이 그의 아버지의 전사하였음을 듣고 따라죽으려고 하였을 때 그 그렇지 않은 사리(事理)를 말하여 후일에 나라를 위하여 훌륭히 죽게 한 부인, 또는 무지무학(無智無學)하여 자기 이

86) 배상명(裴祥明)의 창씨명.

름도 기통(記統)치 못하였으나 그러나 세상에 처(處)하고 사람에 대함에 있어 사리를 명단(明斷)하였고 안으로는 의식(衣食)에 궁하여 빈곤의 궁귀(窮鬼)와 고투하면서 오직 자기의 한 손으로 5남 3녀를 보육하고 교육하여 역사상 예가 드문 대영웅 나폴레옹을 낳은 레치시아 부인이라든지 이 모두 군국의 어머니로서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라는 비상이란 말을 더한층 초월한 국가에 있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존망을 두 어깨에 짊어진 젊은이들이 떨치고 일어서야 할 터인데 이 일어섬에 있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 뒤에 있는 어머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스스로 그 직책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아직도 어두운 조선부인에게 어찌하여야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훌륭한 어떠한 나라에게라도 지지 않을 군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시국을 재인식 시킬 것

아직 조선부인 중에는 현하 시국의 박금에 있어 대단한 관심이 없는 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다르고 '아까'와 '이때'가 또 다른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든 여러 가지 말을 한 대야 별로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고로 지금의 시세가 어떻다는 것 이런데 그네들이 마음을 바로 꿰뚫어 안가지면 장래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는 것을 잘 인식 시킬 것입니다.

2.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역사상 사실을 들어서 그 전통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

삼국시대의 조선부인은 참으로 용감하였고 장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자손에 대하여 순국정신을 길러주는데 즉 군국의 훌륭한 어머니로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저 유명한 서양의 '스팔타'부인에게도 지지 않는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들의 후손이 그들의 피를 받은 지금의 우리가 이다지도 연약하게 된 원인은 물론 근세 태평시대에 처하여 문약(文弱)에 흘렀다는 데 있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네 자각, 즉 스스로 깨달음이 적었다하겠습니다. 옛날의 훌륭한 사람도 사람이요, 지금의 우리도 사람이니 다 같은 사람으로서 또한 지금과 같이 발달된 문명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찌 그네들에 따르지 못한다 하리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기네의 지난 일을 돌이키게 하고 그 자부심에 호소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건데 지금까지의 우리들 지도자의 취한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모두들 많이 목전의 일만을 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지난날 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우리네도 이러한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지금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한바와 같이 시국의 재인식이라든지 역사상 전통적 사실을 들어서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학교 재학 중의 생도와 사회에 나가있는 여성과 나누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장래의 사회에 있어 중견(中堅)부인이 될 여학생교육에 대하여는 지금 모든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요. 그러나 이러한 점에는 아직 그리 유의치 않는 형편이오니 이 점을 좀더 강조하여 그들의 자각을 촉진함이 가할 뜻 합니다. 둘째로 사회에 나가있는 여성에 대하여는 일대